

## 남가주교협, 광복절 66주년 기념 연합감사예배 드려



교협 민중기 회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는 이만열 교수 © 토마스 맹 기자

광복절 제 66주년 기념 연합감사예배가 남가주교협(회장 민중기 목사) 주최로 총현 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에서 14일 오후 5시에 드렸다.

이날 '노예로부터 해방 받은 자의 과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만열 교수(숙명여대 명예교수)는 "66년의 남북한이 분단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연상하게 된다."라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참 자유와 화해, 하나 됨을 주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한민 2세들에게 이중 언어를 배워야 할 선택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아이들이 한국과 미국 등 양자를 택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를 가르쳐야 한다.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며 이중 언어와 역사교육도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노예에서 해방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해방 66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라고 물으며, "일제의 의해 식민지화 된 것을 부끄러워 말라. 그것을 귀중한 자산으로 삼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세계사에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라며 말씀을 마쳤다.



광복절 제 66주년 기념 연합감사예배가 남가주교협 주최로 총현선교교회에서 14일 오후 5시에 드렸다.

민중기 목사는 기념사에서 "이제 해방 66주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우리에게는 분단된 반도에 자유와 해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민족 교회에 주신 사명을 다시 생각해보았으면 한다."라며 "이민사회와 교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공헌을 통해, 민족의 장래가 웅비하고 온 한반도의 평화와 해방의

자유가 장일하게 흘러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밝혔다.

연합감사예배는 사회에 민중기 목사, 환영사에 손수용 장로(교협 이사장), 기도예에 하인 장로(남가주장로협의회 회장), 성경봉독에 김요섭 목사(교협 서기), 말씀에 이만열 교수, 헌금기도에 홍성관 목사(교협 회계), 특별기도에 김성일 목사(교협 부회장), 정요한

목사(남가주목사회 총무), 박성규 목사(교협 부회장), 특별찬양에 미주복음방송 선교합창단, 축사에 박효우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 신연성 총영사(LA 총영사), 특별연주에 변덕수 사물놀이패, 광고에 박세현 목사(교협 총무), 축도에 송정명 목사(미기총 회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thomas@chdaily.com

## 10년 후 종교의 판도, 어떻게 될까?

중앙선데이, '10년 후 세상' 에서 종교분야 다뤄

10년 후 기독교는 원리주의나 자유주의 대신 '성령 체험' 등 일상과 다른 체험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인기를 끌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13일 고국 중앙일보의 일요일판 중앙 SUNDAY '10년 후 세상' 종교편에 따르면 10년 후 유럽·미국에서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spiritual but not religious)" 사람들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종교와 반종교 사이 제3의 길은 영성(spirituality)이 아니겠느냐"며 "이들의 특징은 제도적 종교에 속하지 않지만, 종교서적 읽기나 명상, 봉사나 환경보호 활동 등으로 종교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슬람과 기독교, 중국 기독교인 증가세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출산 등을 통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

슬람이 기독교를 제칠 것인지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19-21억명(세계 인구의 29-32%), 이슬람은 13-16억명(19-23%)으로 집계되는데, 세계 기독교백과사전(WCE)은 오는 2025년 종교 분포를 기독교 26억명(33.4%), 이슬람 18억(22.8%)으로 전망한 것. 오히려 세계 종교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아프리카 등 제 3세계의 토속 종교들의 신자 수가 대폭 줄어 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럽에서 테러가 일어날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성장세가 10년 후 꺾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한 것도 흥미롭다. 현재 유럽 내 이슬람 인구는 1500-1800만명인데, WCE는 2025년이 되면 2500-30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신자 증가율은 2010-2020년 사이에는 1.5-1.7%이지만, 2020-2030년

에는 1.4%로 감소한다. WCE는 이슬람 인구 가 기독교와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는 지점으로 2070년을 예상했다.

세계미래학회(WFS)는 <2011-2025년 전망>에서 이슬람 지역의 원리주의 대신 세속주의가 득세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개신교 국가에서 세속 국가로 변모한 유럽·미국처럼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슬람과 기독교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기독교의 중심은 이미 유럽·미국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등 제3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심지어 21세기 후반에는 히스패닉계 인구 증가 때문에 미국 내에서 가톨릭이 개신교 인구를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미국은 10년 후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 자리를 나이지리아나 중국에 내줘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다.

중국 기독교 인구는 최소 5천만명, 최대 1억 5천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출석 신자 로만 보면 이미 미국을 앞섰다는 분석도 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을 믿는 중남미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오순절교회를 중심으로 가톨릭에 대한 개신교의 도전이 계속되리라는 것. 브라질의 경우 10년 후인 2020년 개신교 인구가 가톨릭을 앞선다는 예측이 이미 나왔다. 그러나 가톨릭이 개신교에 공간을 내줄 만큼 이미 내렸으며, 가톨릭이 반격을 시작하리라는 반론도 있다.

앞으로 10년간 유럽·미국의 기독교 성도 수와 교회 출석률 감소세는 지속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미국은 현재 비신앙인 비율이 15%인데, 이 무신론자들

의 연대와 '선교 활동'이 강화되리라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에서 기독교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불교에 대해서는 "대량문화 운동을 배경으로 성장한 불교 지도자들이 대거 은퇴·사망하고 있다"며 "향후 10년간의 세대교체에 미국 불교의 미래가 달렸다"고 예측한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E, DAEWOO, TECHSEAL, BRAKE CHECK, TIRE ROTATION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www.easy2424.com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브라이언 타팔라 변호사가 맡은 대형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재판결과가 달라집니다.

**\$3천9백만불 CHP 경찰 전신 마비**

브라이언 타팔라 변호사  
213-386-5500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LEE & KENT LAW FIRM  
www.leeandkent.com  
www.us-lawoffice.com

**이민법 [Immigration]**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종교비자·종교이민·가족이민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 추방재판, 불법체류 구제
- 비자거절·항소

**상법 / 소송 [Business / Litigation]**

- 민사(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법
- 형사,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상법(계약체결·위반)

**파산법 [Bankruptcy]**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신용 문제 상담

**[특별상담]**

- 비자 거절
- 영주권 거절
- 추방재판

대표변호사 이문규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 전문변호사  
Univ. of Minnesota 법대 (시카고) 졸업(1993년)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정회원 변호사  
연방법정 및 세관관할 정회원 변호사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설립  
미주 상공인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국제 Law Firm Coudert Brothers 변호사  
국제거래/로스앤젤레스/이민법/세법 전문변호사 겸 해설

**LA Office**  
3250 Wilshire Blvd, #1404  
Los Angeles, CA 90010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2-7  
영동빌딩내 더블유 오피스 J7호  
02-541-0556

**이문규 법률그룹**  
LAW FIRM  
대표전화 213-380-2828

# “지속 없는 성령체험은 가스 없는 고급차와 같아”

나성서부교회, 여성성령집회 개최 · · · 강사 이정현 목사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담임 이정현 목사)에서 '성령님, 당신을 감당합니다'라는 주제로 여성성령집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 열렸다.

집회 강사는 이정현 목사로 나성서부교회에 부임한 이래 처음으로 인도하는 집회다. 둘째 날 이정현 목사는 에스겔 47장 1-12절을 본문으로 '성령의 강으로 점령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이 목사는 지금도 골방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 하셔서 역사하신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하는 스킨십이 중요하다. 사랑한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피부접촉이 있어야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고 건강하게 자란다. 신앙생활도 원리가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예배시간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피부로 접촉하는 것처럼 확실하고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느끼는 통로 두 가지가 있는데, 예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접촉할 때 성령 체험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 나는 예전에 기도할 때 설교자가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총만하기를 기도한다."

그는 예배의 시간은 그냥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이라며, 어떠한 방법으로 성

령이 임할지 모른다고 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다양하다. 방언 받으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심판하고 징죄하면 안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양하다. 예전에 사우스베이에서 목회할 때 한 성도 집에서 심방을 가서 심일조를 해야 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다. 근데 그 성도분이 일주일정도 혼미한 상태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다. 그래서 달라진 것은 TV를 즐겨 보던 사람이 성경책을 매일 몇 백 장씩 읽더라는 것이다. 성경이 풀송이처럼 달게 되고, 1년에 12독을 하게 된 것이다. 나중에 그분이 간증을 하게 돼서 알게 됐다. 그래서 성경 읽는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이상이 있던 갑상선이 깨끗이 나왔다. 그리고 그 성도를 중보기도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봤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터치하고 만지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 목사는 "성령의 총만함은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은 나보다 훨씬 높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줄로 믿는다."라며 "성령은 과거에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야 한다. 아무리 고급차라도 가스를 넣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과 같이 과거에 성령의 체험을 받았을지라도 계속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목사는 "성령의 은혜를 그저 주전자로 '졸졸' 주는 것이 아니라 강물과 같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이라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니 물이 '팔팔' 나왔다는 것은 강물과 같이 엄청난 양의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도 남을 정도라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강물같이 엄청난 양의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강물과 같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성령 총만함의 네 가지를 설명했는데 첫 째는 '발목'체험이다. "발목체험은 세상에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 말한다. 성령 체험을 받으면 이제 세상 재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발목

이 된다. 나는 1970년대 대학교 1학년 시절,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사람이었다. 그때 하숙을 했는데 하숙생들 여러 명과 같이 지냈다. 매주 주말이 되면 하숙집 주인이 삼류극장 공짜표를 주어서 동기들과 같이 삼류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재미가 있었다. 여름방학 때 대학생 교회 수양회에 갔다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었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옆에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울컥하면서 회개의 기도가 나왔다.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나왔다. 회개의 은총을 임계되었는데, 달라지는 것이 삼류극장이 아니라 교회라고 싶더라. 은혜 받은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된다. 주님을 더 가까이, 교회 말씀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 영적인 체험이다."

이 목사는 두 번째는 무릎, 세 번째는 허리, 네 번째는 온 몸 체험이라고 강조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한다. 73년도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다. 신학교에 가서 졸업하기까지 5년 동안 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내성적인 성격이 바뀌고 목소리도 탁 트이게 되고, 산기도하면서 기도도 끊어졌다. 하나님이 목사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 감당하는 은혜 주시리라 믿는다. 허리는 힘을 쓰는 것을 상징한다. 씨름할 때 허리힘으로 기선 제압을 하게 되고 이기게 된다. 성령의 은혜가 허리까지 차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마지막은 성령님과 정적인 교제와 교통을 말한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한다.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나는 안 보인다. 나의 존재는 사라지고 예수의 형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삶이 오로지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기 전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나의 목회 기도제목중 하나가 '예수의 마음으로 목회하게 해주세요.'이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지만 나쁜 공기가 있다. 음란과 호색, 나쁜 습관, 나쁜 생각 등,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면 동행하게 되는 초자연적인 삶이 이뤄진다. 성령 총만함을 받아서 불뉘를 붙일 때 내 자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토마스 맵 기자

# 남가주교협, 교역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 접수 시작

9월 2일까지 작은교회 교역자 자녀 중심으로 접수



남가주교협에서 '작은교회 교역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17일 오전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혔다. ©토마스 맵 기자

남가주교협(이하 교협. 회장 민중기 목사)에서 '작은교회 교역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교협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LA 한인타운 다호갈비와 LA외곽지역 북장동순두부에서 작은 교회 교역자 자녀들의 장학금 기금 마련을 위한 1일 시당을 개최한 바 있다.

교협은 17일 오전 10시에 교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흘간 총 2만4천260불을 30여 개의 교회와 단체, 개인으로부터 모금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20여 곳에서 총 1000불 이상, 총 2만5천불 이상 모금 후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50명의 교역자 자녀에게 500불씩 수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주로 남가주 지역의 교회 등으로부터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남가주지

역 건전한 교단의 교역자(목사, 전도사) 자녀로, 한 가정에 한 자녀이어야 하며, 현재 6학년에서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된다. 작년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교협 홈페이지(www.theckc.org)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서, 학생증 복사본(student ID copy) 또는 재학증명서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난 3주간의 주보를 같이 동봉해 9월2일까지 교협사무실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결봉에 '장학생서류'라고 기입하면 된다. 또 교협은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자가 초과될 경우 작은 교회가 선발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제출처 :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A, CA 90006  
문의 : 323-735-3000(교협) 토마스 맵 기자

# 영어로 된 '한국교회사' 출간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출간

영어로 된 <한국교회사.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가 최근에 출간됐다. 저자는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김인수 목사.

미국의 한인 1.5세, 2세대, 그리고 영어권 사람들이 영어로 된 한국교회사에 대한 책이 없어 한국교회의 역사를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해, 그가 쓴 <한국기독교

사>가 영역돼 한국 토크출판사를 통해 출간됐다.

저자는 "한국 가톨릭교회 초기 역사와 개신교의 초기 전래부터 21세기에 접어들 때까지의 역사를 당시의 원 자료를 동원해 간결하게 정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한 책이다"라고 설명했다.

가격은 \$20.  
문의 : 213-703-7602 토마스 맵 기자

## LA ORT 취업전문 직업대학

[연방정부 학력공인, 이민국 SEVIS 인정]

▶ 영어 과정 학비, 교재비 전액 무료. 시민권, 영주권, 저소득층 유자격자

다양한 직업교육 8-12개월  
자격증 보조금 지급  
고수입 일한 직업 추천

1. 메디칼오피스메니지먼트학사취득, 건축설계, 의사보조, 약사보조  
2. 비즈나스메니지먼트학사취득, 아카운팅 AAS학사취득, 그래픽, 포토샵  
3. 유학생 I-20발급, 방문비자BI, B2를 학생비자F1으로 변경가능  
4. 유학생은 LAORT 졸업 후 위크워크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대표전화 (323) 556-5386  
Cell. (213) 434-8128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박희민, 이원성,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조요한 편집국장: 토마스 맵 광고국장: 이민규  
지사망: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213) 739-0403  
팩스: (718) 228-9506 / E-mail: chdailyla@gmail.com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이민국이 부담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 이해하기 쉬운 한 권으로 된 4복음서

이해하기 쉬운 한 권으로 된 4복음서

1 일찍이 쓴 음영본, 주역본 해설!

강신권, 최덕희 역주

이 책은 4권의 책을 통합하여 한 권의 책으로 일찍이 쓴 음영본, 주역본을 정리하였습니다. 더욱이 해설을 첨가하여 복음서를 위한 준비된 영고사와 같은 책입니다.

● 본서는 4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를 한권의 책으로 엮어서 10개의 큰 주제와 218개의 작은 주제로 분리하여 정교하게 조직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킹 제임스 흠정역 : The King James Authorized Version 성경 한영 대역본을 선정하여 본문들을 기록하였습니다.

● 킹 제임스 성경은 주후 1611년 발행된 후 단 한번도 개정 작업을 거치지 않고 보존된 원어에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본서는 주제별로 정리되었고 해설 및 주석이 첨부되어 기록된 4복음서를 위한 준비된 참고서와 같은 책입니다.

● 누구든지 읽기만 하면 4복음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이스라엘의 풍습, 문화, 정치적 상황, 종교적 환경, 지형 등을 정확히 기록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심중에 깊이 간직하며 각인하게끔 통달하게 될 것입니다.

저/자/소/개

강신권 박사  
미국, UCLA 및 CA 국제대학원(M.S. in Economics)  
미국, 펜실베이니아 웨이스 신학대학원(M.Div., Th.M, D.R.E., Th.D)  
미국, 국제신학대학원(M.A.B.L.)  
미국, CGST 대학원(Th.D)  
미국, PTSA 대학원(D.Min.)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CE.)  
미국, Fuller 신학대학원, Claremont 신학대학원 수학  
브라질, 바타베 신학대학원(영어박사)  
피라과이, 소피아 신학대학원(영어박사)  
미국,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Founder/설립총장  
미국, Piedmont University, Chancellor/대표총장  
미국, 교수협회 교수 자격증(ID:1058800)  
미국, CSA 원전해석학회, 상임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세계본부(KASMI), 상임본부장/CEO  
나눔과 기쁨 미주본부(JSA), 본부장/CEO  
미국, 한-옥 기독교 연맹(AAKACA), 총재/CEO  
750만 해의 동포특별법제정 공동위원장  
VISION 153 World Mission, 총재/CEO  
미국,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목사/성경 및 신학 국제초빙전문강사  
성경구조해석학, 리더십, 유대인 천재교육 등  
20여 권의 책과 수많은 논문 발표

최덕희 박사  
미국, 코넬대학교 및 신학대학원 졸업(Th.M., D.C.E.)  
CUTS 기독교교육학 교수/CUTS 잉키박물관 관장  
미국, 피드몬트 대학교 교학과장  
미국, 세계성경장로교회 교육부, 지도위원  
미국, CA Fresno County Reedyly 한국이민지원 민속박물관 개설  
국제멘탈림 위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미주본부(KASM) 홍보분과 위원장  
나눔과 기쁨 미주본부(Joy of Sharing in America) 출판분과 위원장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 창립의원 및 회장, 이사장 역임  
미주 한인 초기 이민 사료 연구  
영문시, 수필, 이민 사료 다수 발표 및 대상 수상  
한국, 서울 성동고등학교 교사 역임



## 사역지를 위한 목회자 모임, 미주기독교 목우회 출범

목회자 및 장로를 중심으로 한 친구들 모임이 목우회라는 이름으로 발족했다. 정식 명칭은 '미주 기독교 목우회(이하 목우회)'로 지난 5월 7일 발기인 모임을 처음 갖고, 2차, 3차 모임을 거쳐 창립대회를 6월 16일 나성배틀레영교회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문 에 이광덕 목사, 장 프렌시스 목사, 회장 양승걸 목사, 수석 부회장 최학량 목사 등 총 17명의 임원이 세워졌다.

목우회는 시무목사, 은퇴목사, 무임(無任) 목사, 장로, 전도사 등이 한데 모여 성별, 인종, 은퇴, 시무에 구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한다. 목우회는 지난 8월 월례회를 에네교회(담임 표세홍 목사)에서 개최하고, 5개 단체(미주기독교 목우회, 한기총 미주총회, 남가주한인목사회, LA교역자협의회, 간도광 찾기 운동본부)에서 공동 주관하는 북한에 밀가루 보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건을 신안건 토의에서 통과했다.

이날 여호와께서 대사를 향하심(시 126:1-6)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기홍 목사(미주에비역군목회장)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고 두 번이나 나오는데, 과거에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의의 종이 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드라마, K팝 등 한국 문화가 인기를 얻는 것을 보면 복음 전파의 도구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많은 이민자들, 디아스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이라는 대사를 일으키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예배는 기도예배로 시작(부회장), 성경봉독 박상원 장로(부회장), 설교에 이기홍 목사(미주에비역군목회장), 특송에 손사라 선교사, 봉헌기도에 박이나 목사, 광고에 백형문 목사, 축도에 정시우 목사(US NDC 군목 회장) 순으로 진행했다.

회장 양승걸 목사는 "목우회는 한국 사람

뿐만 아니라 백인, 흑인, 라티노, 필리핀 등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함께 어우르는 단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또한, 목우회 중창단이 지난 6월6일에 창단해서 7월17일에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린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성가합창

### 인종 초월해 연합하는 단체 지향 무임(無任)목사 사역하도록 도움 줄 것



-미주기독교 목우회 창립 취지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각 교단에서 은퇴한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목회자 및 장로를 중심으로 한 친구들 모임입니다. 시무목사, 은퇴목사, 무임(無任)목사 등이 모였습니다. 또한 장로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사, 선교사 등이 회원 자격이 됩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백인, 흑인, 라티노계, 필리핀계 등 모든 인종을 초월한 단체를 지향합니다. 많은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미국 50개주를 아울러서 많은 수의 회원을 확보해 정보를 수집할 것이고, 인지가 없는 목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다양한 민족이 화합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

제에 처음으로 참여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유익한 장로가 단장으로 중창단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매월 첫째 주 목요일은 월례회로 전체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9월 월례회에는 목우회가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예배와 911, 10주년 기념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칠 활동을 말씀하신다면,  
금년 중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창단에 역할을 실어서 더 훌륭한 합창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원 구성원이 성별, 인종, 연령을 초월했기 때문에 모든 인종을 아우르는 기독교

목우회 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오는 9월1일에 한국에 놓여온 불우이웃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앞으로 사우스아프리카, 캄보디아에 영여권 선교사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24일에 한인축제 기념 국제 오픈 태권도 경연 선교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50여명이 방문해서 시범을 보이고 선교활동도 펼쳐질 것입니다. 십자가 거리행진도 조만간 펼칠 예정입니다. 특별히, 무임(無任)목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목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일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임지를 찾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목우회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도시에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소도시에는 목사들이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 정보를 수집해서 소도시에 파송하고 임직을 찾을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미주 기독교 목우회 임원 명단)  
고문 이광덕 목사, 장 프렌시스 목사  
회장 양승걸 목사  
수석부회장 최학량 목사  
부회장 김바울 목사  
부회장 표세홍 목사  
부회장 류달영 목사



- 부회장 엄테라사 목사  
부회장 박상원 장로  
총무 백형로 목사  
회계 정여창 목사  
서기 전희숙 목사  
감사 정사무열 목사  
감사 김영봉 장로  
중창단 단장 유익상 장로  
중창단 부단장 차기학 목사  
중창단 부단장 그레이스황 전도사  
토마스 맵 기자  
thomas@chdaily.com

### 남가주 사랑의교회 교역자 창조과학 탐사여행 마쳐

그랜드캐년,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 다녀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선임목사 고석찬)는 지난 8월 1일부터 3박 4일간 미국의 3대 국립공원인 그랜드캐년과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을 여행하면서, 교역자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세계창조선교회(WCM)의 박창성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된 이번 수양회는 교역자들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심신을 재충전하며 영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무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선교회 측은 밝혔다. 세계창조선교회가 교회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창조과학 탐사여행은 아름다운

운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솜씨와 능력을 깨닫고, 지층과 화석에 나타난 노아 홍수의 증거들을 보면서, 진화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선교회는 설명했다. 박창성 목사는 버스에서 야외에서 틈틈이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비효율성, 교회의 쇠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진화론의 공격으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는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토마스 맵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수혜자 들께 알립니다!!**  
2011 처음 메디케어 A와 B를 받으시는 분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수호천사보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해외여행시 응급비용지원  
●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CA LIC #0G67882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교회 기념타올

동부사인&트로피

간판부 Tel.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UCS UNIVERSITY OF CALIFORNIA**

UCS UNIVERSITY OF CALIFORNIA 및 부설 After School 학생 모집

**UCS UNIVERSITY 신학 대학생 모집**

사람을 찾습니다.  
격변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땅 끝 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본교는 Quarterly 운영함으로 수시입학, 수시 졸업이 가능합니다.

- Winter Quarter 1월부터 3월까지
- Spring Quarter 4월부터 6월까지
- Summer Quarter 7월부터 9월까지
- Fall Quarter 10월부터 12월까지

※ 많은 장학금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After School 학생 모집**

UCS University (UCS 신학대학) 부설 기관 After School 아브라함 아카데미에서 아래와 같이 소수 학생만 선착순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 수업내용 Homework, Project, Report 특별 활동 등
- 모집대상 초등학생 1학년부터 5학년까지
- 수업기간 월 ~ 금 (2:30 pm ~ 5:30)
- 픽업시간 5:30 ~ 7:00

※ 목회자 자녀, 싱글 맘 자녀, 한 가정 두 자녀 일 경우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www.ucsuniversity.com](http://www.ucsuniversity.com)

# 미주 예배사역연구소, 워싱턴에서 시동

## 한인교회 적합한 예배 프로그램 연구 개발 집중할 것

미주예배사역연구소(대표 이유정 목사)가 워싱턴 지역에 탄생한다. 오는 8월 22일 한빛 지구촌교회(담임 장세규 목사)에서 설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미주 예배사역연구소는 건설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의 예배와 찬양 사역, 문화 사역, 리더십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연구소로 지난 2005년 한국 지구촌교회 최지호 예배 목사에 의해 시작됐다.

미주 예배사역연구소 대표 이유정 목사는 “지구촌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지 교회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민족과 열방을 복음화하는 주제로서 예배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미주 예배사역연구소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한국 예배사역연구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모든 자료와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디아스포라 교회에 적합한 예배 프로그램과 학교 등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게 된



미주 예배사역연구소 대표 이유정 목사

다. 아울러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의 통합 모델을 추구하는 워십 에브리데이(Worship Everyday)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미주 예배사역연구소의 목표는 크게 6가

지로 △모든 크리스천이 예배정신(Heart of Worship) 구비하기△전인적 예배사역(Holistic Worship Ministry)을 연구, 개발 보급하기 △한인교회 및 디아스포라 교회에 건강한 예배사역 일으키기△평신도 예배사역자 모델을 개발하여 중소형 교회에 확산시키기△목회자, 예배인도자가 성경, 신학적으로 균형 있는 예배영성 구비하기 △예배 팀의 음악, 미디어, 예술적 탁월성 개발하기가 있다.

설립예배에는 예배 후 간단한 다과가 제공되며, 리버티 예배학 과정 신학생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진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한빛지구촌교회 유스예배실에서 열린다. 시간은 저녁 6시다.

문의) 571-247-7557, unplugw@gmail.com, www.wmi.or.kr

주소) 3901 Fair Ridge Dr. Fairfax, VA 20152 권나라 기자



장애인 및 가족, 봉사자들 5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밀알 동부 지역 사랑의 캠프'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뉴저지 소재 더블트리호텔에서 열렸다.

# “장애인, 축복의 통로” 제 19회 밀알 사랑의캠프 성황

### 장애인 및 봉사자 520명 참석, 뉴저지 소재 더블트리호텔에서

장애인 및 가족, 봉사자들 5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밀알 동부 지역 사랑의 캠프'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뉴저지 소재 더블트리호텔에서 열렸다.

“장애인, 축복의 통로(창 12:3)”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서는 워싱턴에서 성인 캠프 주제 강사로 김만봉 목사(워싱턴 지구촌교회), 학생 캠프 주제 강사로 우민아 전도사(볼티모어 갈보리교회)가 각각 말씀을 전하며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 워싱턴밀알선교회 단장 정택정 목사는 환영 인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면 얼마나 큰 보람이 있겠는가? 장애인과 장애인을 섬기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장애인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

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평생도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을 믿어주시길”고 격려했다. 이번 캠프는 장성규 형제의 클라리넷 연주, 이준수 목사(여성마비, 밀알&세계 편집자)의 특별 간증, 김준식, 장경훈 한의사의 한방 봉사, 미용 봉사(박화주), 발달사 지(이경희, 황순희, 김혜영, 최원경, 김신애) 봉사로 더욱 빛났다. 또 감동 스토리를 담은 영화 ‘글러브’를 상영하며, 장애인 및 봉사자들의 눈가를 축축히 적셨다. 이외 성인은 ‘예배, 진료, 이미지, 네일, 수영, 특강, 밀알의 밤(총극대회), 은혜의 한마디, 테니스’를, 아동은 ‘예배, 수영, 게임, 댄스, 사진찍기, 영상보고,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화합을 이루는 축제가 됐다.

권나라 기자

# 한국 최초 찬양선교사 마두원을 기억하는가?



Mr. D-R. Malsbary B.Mus. Piano, Voice, Band, Orchestra

기억 속에 사라질 뻔 했던 한국 최초 음악선교사 마두원 선교사(드와이트 말즈베리)의 찬양 편곡 업적을 담은 음반이 한 피아니스트에 의해 출사됐다. 친분이 있던 마두원 선교사가 직접 피아노를 가르쳐 주며 전해 준 찬양편곡집을 담은 음반이다.

그 주인공, 김애자 피아니스트는 “단순한 새 음반이라기 보다 마두원 선교사님의 음악이 부활되는 한국 음악사의 소중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와싱턴한인교

### 김애자 피아니스트, 찬양편곡집 음반으로 엮어

회, 한빛지구촌교회, 변영교회 등지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가진 바 있는 김애자 피아니스트의 연주는 8월 17일(수) 오후 7시30분 빌립보 교회에서도 선보인다.

김 피아니스트는 “1960년 초기 피아노를 배울 때 자신이 쓴 두 권의 찬송 피아노 편곡집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2010년 거의 반세기가 지난 후에야 그분의 음악을 다시 보면서, 지금 녹음하고 전하지 않으면 선교사님이 남긴 유산이 영원히 기억 속에서 잊혀질 것이라는 긴박감이 다가왔다”며 “내게 주어진 사명이자 선물로 여기고 음반 제작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마두원 선교사는 1899년 캘리

포니아에서 태어나 시카고의 셔우드(Sherwood)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1929년 미국 북장로교의 음악 선교사로 한국과 첫 인연을 맺었다. 그는 평양송실전문학교와 평양외국인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한국에 서양음악을 소개하고 교육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순회 공연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했으며, 김동진(작곡가), 박태준(전 연세대학 음악대학장), 김홍전(대전대학학감, 음악가, 캐나다에서 활동), 채리숙(오페라), 한동일(피아니스트), 백건우(피아니스트) 등 위대한 한국 음악가들을 교육, 배출했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점차 강포해지고 신사참배 강요가 심

해지자 1936년 마두원은 평양송실전문학교를 사임하고 학생들과 자신의 집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바로 이곳에서 함께 기도했던 학생들이 바로 훗날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방지일, 박윤선, 강태국 목사였다.

1940년 선교활동 때문에 강제출국 당한 후 캐나다 프레리성경학교(Prairie Bible Institute)에서 음악 교수를 역임하며 한국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듯 하였으나 한국이 해방되자 1948년 목사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온 이래 1977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기까지 한국에 자신의 삶을 바치며 헌신했다.

방지일 목사는 마두원 선교사를 기억하면서 “그는 ‘오늘 내가 곁에서 만난 사람에게 전도하지 아니했다면 이후 주님의 빛을 보기 미안하지 않겠느냐’며 길거리 전도를 열심히 했다. 그의 말에 우리는 매일 거리에 나가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며 “그는 참 기도꾼이었으며, 성경을 대하는 진지함은 다른 이를 비길 데가 없었다”고 회고했다.

김애자 피아니스트의 연주 및 간증은 8월 17일 빌립보교회(담임 송영선 목사)에서 오후 7시30분 개최된다.

권나라 기자

# ‘복음을 왕성케 하라!’ 예수잔치 열린다

###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최창섭 목사 강사로 슈가로프한인교회에서

에틀렌다 침례교인들의 대축제, 2011 예수잔치(대회장 최종룡 목사)가 9월 30일(금)부터 10월 2일(주일)까지 슈가로프한인교회(담임 최봉수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예수잔치의 강사로는 뉴욕 에벤에셀선교회 최창섭 목사가 나선다. 최 목사는 플로리다 한인침례교 협의회 회장, 뉴욕 한인침례교 지방회 회장, 북미 한인 침례교 총회 국제선교부 서기 및 인선위원, 뉴욕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주침례회한인교회총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복음을 왕성케 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예수잔치 집회는 9월 30일(금), 10월 1일(토) 오후 8시, 2일(주일) 오후 6시 시작되며 2일 오후 4시에는 ‘침례와 주님의 만찬’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6일 집회를 위해 아틀란타 사랑침례교회(담임 홍문공 목사)에서 준비기도회를 가진 관계자들은 집회 준비 사항을 확인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광고한 준비위원장 염규옥 목사(참좋은침례교회 담임)는 각 교회가 오는 24일부터 집회가 끝나는 10월 2일까지 40일 기도회를 가져줄 것을 권면했으며 대회장 최종룡 목사(알바니제일침례교회)는 “예수잔치는 조지아한인침례교회 전체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각 개교회가 함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행사이기도 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서용남 목사(아틀란타드림침례교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선구자로 설 것과 하나될 것을 위해 기도하셨다. 모든 교회가 예수잔치로 하나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한편, 예수잔치를 위한 차기 기도회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한빛전교회(담임 이요섭 목사)에서 열린다.

김앤더슨 기자




-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가가 없으세요?
-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 Shepherd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는 2011년 2월, ATS 정회원 자격을 위한 Candidacy Status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제 세계적 명성의 신학자들과 더불어 자신있게 공부하십시오**

**우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박사**

브레노스 아이레스의 영성 운동의 주체이자 20여년의 성경적 제자훈련의 창시자이다. 영성과 교화영성, 제자훈련을 주제로 전세계에 나가 리드십을 발휘함으로써 전세계 스페인어권 그의 열광적 TV를 통하여 방영되었으며, 그의 책 '제자입니까' 출판 이후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외 20여권의 책이 한국어로 출판되었으며 현재 웨퍼드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역장으로 제자훈련영성, 교화영성, 제자도 분야에서 제자들을 영육하고 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

영역영성 내역사주의 세계적인 연문가로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물론 한국, 호주, 스위스, 독일, 태국, 대만 등 여러 세계 각에서 내역사주의 제자훈련을 인도하였다. 저서로는 "같은 영성을 자유아시는 하나님", "사적인 영을 대역하라", "영역 전투에서 승리하라", "능력 기독교" 등의 책을 한국어로 출판되어 세계적인 영성영성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웨퍼드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내역사주의 강의를 하고 있다.

**이로써, 하버드신학대학, 예일신학대학, 프린스턴신학교, 풀러신학교, 탈벗신학교, APU신학대학원 등 미국의 우수 신학대학들과 학점교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교 MDiv 및 DMin 학위와 학점은 미국 모든 신학교에서 인정됩니다.**

**ATS는 미 고등교육인증위원회(CHEA)와 미 문교성(USDE)으로부터 공인 승인된 미 연방 학력인증 기관입니다.**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신학대학 프로그램**

학위	프로그램	학점
학사	B.A.B.S.	128
석사	M.Div	96
박사	D.Min	42

입학문의전화  
213.481.1313  
신학대학 교무과  
김은희 계장

**웨퍼드 신학대학(원)은 신학과 영성, 영성과 신앙의 균형있는 교육을 통하여 "For the Lord, To the World"의 기지로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통역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일정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로 영어와 학위프로그램 이수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웨퍼드대학교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info@shepherduniversity.edu  
www.shepherduniversity.edu

#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 에베소서 5:1-10

장재효  
서울성은교회 목사



1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5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게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6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7 그러므로 저희와 함

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8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구원의 빛이시며 영원한 빛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핍박과 환란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총의 대상으로 불들어 써 주시게 되며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그리 넉넉지 못한 형편으로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에 딸 둘과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딸 둘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상 주는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을 받아오고 교회에서 모범학생으로 주는 장학금까지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 중에 큰 아들이 말쑥합니다. 중학교도 낙제를 면할 정도로 공부를 싫어해서 가까스로 졸업을 했고 공부가 싫어서 고등학교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장남이라고 집에서는 공부시켜 가문을 일으켜보려 기대를 가지고 뒷바라지를 했지만 공부가 죽기보다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술과 노름에 빠져 부모 속을 썩였습니다. 그래도 작은 아들은 누나들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에 다녔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더럽고 추한 곳엔 가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큰 아들은 그렇게 자라서 술과 도박, 음란 방탕함으로 결국 형무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는 양심이 화인 맞은 심령으로 이성을 잃고 인생의 꿈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악령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도박 빛에 쫓겨 다니다가 모진 목숨이 죽는 것은 두려워서 도적질을 하게 되어 형무소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무료하고 지겹게 감옥살이를 하던 중 그곳에서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고 억압된 생활 속에서 고민하던 중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심장이 폭발하는 듯한 회개가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방탕에 방임했던 자기 인생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지난날들이 후회스럽게 스쳐 지나가다가 이런 자신도 하나님께

서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예배시간에 빠짐없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신앙으로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범수가 되고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광복절 특사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제일 먼저 그의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에 가지자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토록 속삭이던 자식이 교회를 통해 새사람이 되어왔다는 생각에 바로 교회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의아스럽게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목사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모님이 장로님 딸과 그 사람을 중매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성경학교를 다니면서 3년 코스를 1년 3개월 만에 마스터하고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쳐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건축과를 졸업해서 결혼을 한 후 건축회사를 운영하던 장인의 일을 돕게 됩니다. 그 당시는 건축붐이 일어 굉장한 호황을 누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의령에 세운 회사의 사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끼리도 서로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타락했다가 감옥에서 전도 받고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며 성경에 심취하면서 성령께 이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을 찾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생활습관과 모든 것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같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고방식과 말투, 행동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선 다시금 세상을 향한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생축은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짐승처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며 죽임 당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괴로움을 덜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 받아 죽임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그 아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보좌우편에 앉히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닮아가는 변화가 없다면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한 몫이 가장 유익한 것이기에 탐욕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 내 몫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함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죄 값을 대신 벌받아 피로 그 사람의 죄 값을 치루고 구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무리를 성도(聖徒)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4절의 어리석은 말은 금방 탄로날 거짓말과 같은 것입니다. 희롱은 상대방을 비하시켜 놀리는 말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이런 말들을 삼가고 늘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5절에서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수많은 이단종파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단은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손쉽게 구원을 보장합니다. 이같은 헛된 말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못된 짓하고 말씀을 거역하며 불의와 죄악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의 진노(震怒)가 임할 것입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생각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천국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믿다가도 타락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들입니다. 즉, 빛에 거한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할 것이며 온전히 변화된 행동과 성숙한 인격으로 나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답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면서까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내 생애에 모든 것을 모두 바쳐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께서 하늘과 땅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실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신문설교 선교

한국	CBS TV 수요일 오후 8:40 / CTS TV 금요일 오전 6:00 /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문
미국	워싱턴 D.C. CBS TV 화요일 오후 6:00, 금요일 오후 8:00
	워싱턴 D.C. COX TV 화요일 오후 6:00, 금요일 오후 12:00 토요일 오전 7:00, 주일 오후 10:3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30, (동부) 오후 6:30	토요일 (서부) 오후 6:00, (동부) 오후 9:00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2:30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 설교	

장재효 목사 :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선목회 회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전국기도원총연합회 총재.

## 세제가 없는 세상 별난 다용도 이온수기 멀티 이온아이스저가 열어줍니다.

오염된 물 ➡ 멀티이온아이스저 환경을 살리는 물

### 멀티이온아이스저 제품 특성

- 물절약 및 환경보호
- 비누 없이 샤워 및 목욕
- 야채 과일농약 및 중금속 해독
- 화장실 냄새 제거 및 살균 효과

### 멀티이온아이스저 적용 사례

- 탁월한 분해력(세척력, 용해력)
- 고급양복
- 피부보호 및 미용효과
- 부인병 질환

멀티이온아이스저  
제품군



## 비타민 C 샤워기

샤워물 속 염소로 인해 손상된 피부와 머리결을 비타민 C 샤워기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회복시켜드립니다.

\* 비타민 C 샤워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드립니다.

- ☞ 아토피성피부, 손상된 민감한 피부
- ☞ 건성 피부, 가려움이 있는 피부
- ☞ 물속의 염소로 인하여 생기는 비듬 방지
- ☞ 염색한 머리결과 손상된 머리결 보호
- ☞ 연약한 아기피부 보호
- ☞ 애완동물 피부와 모피 보호
- ☞ 30%까지 절수가 가능한 매카니즘



설치와 사용이 간편하고 샤워 마사지 필터 교환이 쉽고 저렴.



엄격한 품질관리 (ISO 9001)와 미국 품질 규격인증 (UPC마크) 획득

# 불어권 아프리카, 이렇게 선교하자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대륙을 새롭게 조명하는 '불어권 아프리카 이슬람 컨퍼런스'가 8월 12, 13일 뉴저지초대교회에서 열렸다. 감사 양승훈 선교사(아프리카 차드), 권형준 목사(파리연합교회 담임 목사)는 13일 오전 강의를 통해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오후 포럼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어권 아프리카를 선교할 것인가' 질문과 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 진행은 한규삼 목사가 맡았다.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대륙을 새롭게 조명하는 '불어권 아프리카 이슬람 컨퍼런스'가 8월 12, 13일 뉴저지초대교회에서 열렸다. 감사 양승훈 선교사(아프리카 차드), 권형준 목사(파리연합교회 담임 목사)는 13일 오전 강의를 통해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오후 포럼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어권 아프리카를 선교할 것인가' 질문과 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 진행은 한규삼 목사가 맡았다.



(왼쪽부터) 진행 한규삼 목사, 권형준 목사, 양승훈 선교사

Q) 양승훈 선교사에게 질문하겠다. 차드 온도가 섭씨 50도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고 갔다.

A) 처음에는 그정도인줄은 몰랐다. 가서야 알았다. 차드로 들어가기 전에 2주정도 차드를 방문해서 리서치 하는 기간이 있었다. 그 때가 차드에서 가장 더운 기간인 5.1-15일 사이였다. 섭씨 50도 정도라고 들었다. 후에 50도를 경험하면서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50도 이상의 더위는 해결이 안되더라. 하지만 1년 내내 그런 것은 아니다. 12. 1. 2월에 가면, 한국 가을 날씨를 경험할 수 있다. 단기선교팀이 이 때 추위를 피해서 오면 좋다.

Q)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아내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두 자녀가 있다. 작은 아이는 우리가 언어훈련할 때 태어나서 3살 때 차드에 갔다. 큰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있다.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를 부탁한다.

그곳은 불어를 통해서 교육받게 되어 있다. 프랑스 분교처럼 운영되는 학교가 있어서 그곳에 다니고 있다. 현지인들보다 나은 환경에 있다. 대부분의 차드 아이들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업 일수의 절반 정도만 나올 뿐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차드 부모들은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을 원하고 있다.

Q) 권 목사님, 10년간 카메룬 선교를 마치고 파리한인교회 담임으로 갔을 때 가졌던 선교에 대한 새로운 결심과 전환을 나누면 좋겠다.

파리에서 한인 목회를 하면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어떻게 선교 전략을 짤 수 있는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어떻게 선교 전략 기지로 삼을 수 있을지가 지금의 토의 주제다. 나는 선교로 하나님 앞에 재현했을 때 신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선교사는 평생의 일이고, 불들림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한인교회라면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파리의 교회가 선교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었다. 그 교회를 통해 아프리카 불어권 22개 나라를 섬기겠다는 마음, 교단과 교파, 단체를 초월해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원래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가면 카메룬 선교회의 대표를 맡고, 코트디부아르로 파송되기로 결정이 이미 나왔었다. 선교사들과 교단을 이끌어야 하는 중압감 가운데 고심중이었다. 교단 안에서는 할 수 있을꺼라고 인정받고 있었다. 그랬던 내가 파리의 한인교회로 가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현지교단 리더, 후원교회, 선교부, 교단 선교부, 총회파송선교부 등 많은 분들에게 파리의 한인교회로 가는 이유를 장문의 편지를 통해 설명했다.

목회하면서 여건과 환경은 좋아졌는지 모르나 선교적인 역량은 축소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다. '프랑스는 선교지가 아니다', '한인교회 좋은데로 갔으니 선교사가 아니다'라는 인식 때문에 괴로웠다.

선교사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밤새 이야기해도 피곤치 않을 정도로 교제를 나누었다. 한 번은 어떤 선교사가 떠나는데 짐을 들어주다가 표를 내고 들어가는데 따라갈 정도였다. '야, 내가 있는 곳은 여기지'하며 되돌아나왔다.

프랑스의 한인교회의 역량은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일하려고 왔는데 다 잘 할 수 없는 여건, 주변 인식, 친척처럼 생각하던 선교부에 전화했을 때 더이상 '선교사'가

직접 선교 불가지역, 전략지역 등으로 지역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전략지역에 차드가 자리잡고 있다. 전략지역에 더 많은 선교 후원이 있다면, 후원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확실한 전략기지로 만들 수 있겠는가.

선교사들이 기대하는 가장 큰 후원은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기도의 힘이 느껴진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는 헌신이 필요하다.

## 불어권아프리카 이슬람 선교 포럼 '한인들,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나' 고민

아닌 '목사'로 불렸을 때의 충격 등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 최근 하나님께서 나의 위치와 할 일을 보여주셔서 알게 됐다. 선교에 대한 부담이 늘 있었는데, 지난해 불어권 선교를 위한 단체를 결성하면서 선교사로서 그 일을 위해 사역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

파리는 지역에 있지만 교회의 영향력은 강하지 못하다. 사회경제주의 체제에 가깝기 때문에 세금이 비싸서 선교 재정이 아주 약한 상태다. 우리 교회가 제법 큰 교회인데도, 같은 사이즈의 미주 한인교회에 비하면 물질 자원이 훨씬 적다.

Q) 선교사와 담임목사 자리 중 한 가지만 택하려면 일년에 한 번씩 아프리카에 가서 종전하고 온다. 지난번에는 카메룬 선교 20주년이 되어서 그곳에 갔다. 키운제자 중에 안수받은 사람이 5명이었다. 교회를 개척, 성장시키고 있더라. 이들을 격려하고 왔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선교 현장에 뛰어들어갔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내 자리가 선교적 역할을 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았다.

Q) 양 선교사님께 질문하겠다.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이 도움이 되는가.

파리에 들 때마다 권 목사님과 함께한다.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누군가 있다는 자체가 위로가 된다. 불어권 아프리카 전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운동과 모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선교는 각계전투 위주였다. 현재 선교사는 전체를 아우를 수 없다.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갖고 있다.

Q) 아프리카 대륙 선교에 있어서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전략 지역은 팀 사역으로 나뉘어져서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제 후원이 필요하다.

물질적인 후원이 있다면 트라이앵글 전략과 연관지을 수 있다. 최고점에 '교회 개척' 그리고 아래에는 문화, 교육, 의료가 배치되고 있는 삼각형을 생각하면 된다. 수도인 센터에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센터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현재는 신학교가 있는데, 이를 확장시켜 의료인들을 길러낼 수 있는 학원 형태의 학교를 생각하고 있다.

학교를 세우는 것과 함께 자료를 만들고 싶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평생동안 읽을 자료가 없다. 불어권 아프리카 지역에는 책이 정말 없다. 게다가 프랑스에는 개신교 관련된 책이 별로 없다. 자료 하나 구하는 것이 힘들다. 인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다.

그리고 차드의 많은 사람들이 리듬감이 뛰어나다. 그들을 세워주고 체육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교회 개척할 수 있는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센터 마련 후 북쪽 2곳, 남쪽 2곳, 동쪽 1곳 센터를 추가로 열면 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과 마을에 선교의 기초를 준비할 수 있다.

재정 지원이 있다면 이곳에 사용하고 싶다. 긴급하게는, 아이들이 굉장히 배고픔을 많이 겪고 있어서 이 아이

들을 돕고 먹고 공부할 수 있는 지원 체제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규삼 목사) 하고 있는 사역의 뿌리가 자리잡았기 때문에 추가로 사역을 펼치는 것 보다는 깊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권형준 목사)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밖에서는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셨다. 양 선교사님도 토발미션의 개념을 말씀하고 계신다.

선교는 토발미션으로 가야한다. 지역마다 단기, 장기적으로 세워야 할 계획이 다르다. 어느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게 있고, 할 수 있는게 없다.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1순위다.

카메룬에 있을 때 현지 교회들이 후원 분담금을 내고 주변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다. 선교가 가능한 회교지역, 브루기나파소로 파송하면서 현지 리더 목회자와 기독교 대표들을 만났다. 현지 교회를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목회자 훈련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브루기나파소의 수도에는 미국인들이 와서 비정기적으로 강의하는 훈련 센터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남쪽에 훈련 센터를 차렸다. 열자마자 60여 명이 훈련받겠다고 찾아왔다. 신학 수업은 물론, 불어는 읽을 줄 모르는 이들에게 불어 수업도 시켰다. 훈련이 끝나면 성경 해석 능력, 교회를 보는 시각 등이 더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선교는 그 지역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단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열여가게 필요하다.

Q) 전략적으로 볼 때 이슬람이 비교적 덜 강한 나라를 베이스로 삼는게 좋은지, 강한 나라로 들어가서 강하게 선교하는 것이 좋은지 단답형으로 답해달라.

권형준 목사 - 50%가 이슬람을 믿는 나라가 2-3개 정도 있다. 이런 곳에서 자원을 발굴해 이슬람을 많이 믿는 나라로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다.

양승훈 선교사 - 제한적인 지역에서 사역에 제한을 받는 것보다 열려있는 가능 지역에서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를 역입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Q) 컨퍼런스 가운데 니제르 같은 경우는 다루지 못했다. 니제르의 기독교 상황을 알려달라.

양승훈 선교사 - 차드밖에 잘 모른다. 다른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직접 방문해 본 적은 있다. 인구의 98%가 무슬림이다. 기독교는 미약한 상황이다. 사역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교회 개척보다는 학교 사역을 하고 있더라. 최고 명문의 중등학교를 만든 것이다. 학교가 대학 입학생을 최고로 배출하는 등 니제르 최고 학교로 등록됐다. 재정 자립도 이뤄졌다. 기독교 학교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조금씩 개척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예수전도단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예수전도단의 사역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사역이다. 그런 사역도 가능한 지역이긴 하다. 현재 기독교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지만, 조금 더 노력하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권형준 목사 - 북아프리카 선교사님 이름은 언급할 수 없다.

이슬람이 98% 이상이 되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다음호에 계속)

윤주이 기자  
jooiee@chdaily.com

# BiF 보루네오가구

## 여름 맞이 SALE

3개월간 동시

**HOT**

▶ 침대겸용 소파  
\$429 → **\$299**

**HOT**

시몬스 매트리스 특별세일  
Queen Size Mattress Only **\$399**

**HOT**

메모리폼 매트리스 특가세일!  
Queen \$399 King \$499 Full **\$299**

**HOT**

기존의 신발장보다 더 크고 튼튼합니다.  
▶ 편리한 신발장 **\$99**

**HOT**

보루네오 사무용가구 대세일!  
UP TO **50% OFF**  
▶ 사무용 책상  
▶ 사무용 의자  
▶ 회의용 가구  
**최저가격 보장!**

**HOT**

이태리 디자인의 밀라노 모빌리책장  
▶ 사무용 의자 **\$89**

**HOT**

(Queen Size Bed only)  
▶ 보루네오 이요리 예코 침대 \$799 → **\$499**

**HOT**

(Queen Size Bed only)  
▶ 시몬스 최고급인 보루네오 침대 **\$399**

**HOT**

▶ 고급스런 디자인의 서랍장  
▶ 5단 서랍장 (B015) **\$189**  
Reg. \$355

**HOT**

▶ 사무용 의자 **\$109**

**HOT**

DR7500 Fabric **\$289**

**HOT**

DR250 Fabric **\$249**

**HOT**

▶ 사무용 의자 **\$89**

**HOT**

▶ 사무용 의자 **\$109**

인체공학으로 만든 인자과학 듀오백 편안함의 경쟁력을 느껴 보세요

**BiF 보루네오 가구**

▶ Los Angeles 매장  
965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323) 731-7777**

▶ 몬테벨로 아울렛  
717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323) 888-0215**

▶ 오렌지카운티 매장  
14190 Beach Blvd.  
Westminster, CA 92683  
**(714) 379-2800**

# 당뇨, 고혈압 전문 한의원

## 전 세계에 알립니다. 당뇨, 고혈압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고 싶은분은 빨리 예약하셔서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도움 받으세요.

8/31/11 11시까지 전화예약 하는분에 한해서 각종 프로그램 60% Off 해 드림

### 이번주 강의: 약을 끊으면 왜 좋은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디를 가도 당뇨, 고혈압에 걸려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약을 거의 다 끊고도 수치가 어느정도 정상이 된다는것은 놀라운 일이고 정말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인데 Radio Interview에서...다 끊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믿기 힘듭니다. 등의 사례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약을 끊으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약은 빠른증상 개선은 좋지만 장복하다보면 또 하나의 부작용이 생길수 있기때문에 약을 줄이거나 해방될수만 있다면 이것은 더이상 바랄것이 없이 좋은겁니다. 당뇨환자들이 약에만 의존하다 수치가 정상인데도 무서운 합병증으로 눈이 안보이거나 신장투석 다리절단괴사, 심장병, 뇌경색, 중풍으로 고생하다 힘들게 되는데 어느정도 약을 줄이거나 벗어나야합니다. 합병증의 고통과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 지식의 무지에서 탈피해야되고 무분별한 음식섭취, 잘못된 지식을 바로 이해해야합니다. 진단을 통해서 자연의 원인치료를 하게되면 놀라운 내몸의 건강상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여러사람들이 놀랍고도 경이로와하는 특별기획, 봉사를 통해서 소중하고도 뜻깊은 만남, 놀라운 치료의 기회시간을 갖으세요. 믿어지지 않는 높은이론, 이 세상에서 모두가 꿈꾸는 자연진료방법,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기술, 수많은 임상사례, 그냥 세월가다 망막증, 다리괴사, 신장병, 절단등의 불가피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면 믿지 않습니다. 또한 무엇이 우리몸, 건강을 기쁘게 하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과 희생속에 얻은일은 기쁜걸 다 압니다. 올바른 가르침, 준비된 생활, 건강도 올바르게 서 있어야합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잘못과 화를내고 실망을 하고 우리의 내면과 영혼과 생각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슬퍼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의 장기도 약해지고 아파합니다. 노력하고 사랑하고 근면하고 훈련된 절제의 생활, 이해와 인내와 바른관계와 생활, 올바른 모습, 약속된 능력, 자기의 정체성 또한 준비된 생활이 건강도 또한 바르게 되는것입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방진단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어하는것을 좋아할수있는 부정속에 긍정과 가르침을 알고 내몸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 내몸은 스스로 기뻐 춤을 추게 됩니다. 더이상 실수했던것을 되풀이 말아야 합니다. 발전속에 새로운 것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건강을 새롭게 원하는 평안의 마음과 형태로 다가옵니다. 두려워말고 걱정하지말고 자연의 한방요법으로 무엇을 진정으로 선택을 알고 우리몸을 기쁘고도 기쁘게...건강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저렴한 비용, 놀라운 한방의술로 고통과 불편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감사와 신뢰와 유익한 건강이 되도록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연구하는 한의원으로 서 있겠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힘든 질병에서 벗어나게끔 믿기 힘든 획기적 증상개선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도와주는 너무나도 좋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 세계속의 한의원

### 각종 프로그램 소개

1. 강심장 청소혈관 프로그램 (심장을 건강하게)
2. 복부비만 관리 프로그램 (날씬하고 아름답게)
3. 간장해독, 맑은눈 증상개선 프로그램 (맑은 눈이 필요)
4. 오십견, 요통, Disk, 좌골신경통 프로그램 (빠른 증상개선)
5. 암예방 면역강화개선 프로그램 (면역력 증강개선)
6. 건강한 폐, 알러지, 기침, 해수개선 프로그램 (폐를 강하게)
7. 요실금 개선 방광염개선 프로그램 (여성이 꼭 필요)
8. 화끈거리는 갱년기 증후군, 골다공증개선 프로그램 (자연적으로)
9. 획기적인 장수건강개선 프로그램 (몸을 보하면서 편하게)
10. 어린이 성장탕, 총명탕, 아토피개선 프로그램(너무 좋음)
11. 자연미인 프로그램 (아름다운 피부, 가슴관리)



<b>1예 - 당뇨병</b> 당뇨병으로 6달정도 복용하던 중 청한원에서 3개월 치료후 다 알약끊고 공복수치가 120정도 정상수치로 되었음. 본인은 너무 감사해 함	<b>2예 - 당뇨병</b> 당뇨병으로 한쪽눈이 안보이고 심혈관이 막혀 잠을 잘 수가 없고 다리가 부어서 걷기가 힘들었음. 5개월 치료후 당이 400정도 됐던 것이 지금은 110 정도 일약 다 끊고 이루 말할수 없이 감사해 함.	<b>3예 - 고혈압</b>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해도 190/110정도 3개월 치료후 약 다 끊고 수치가 121/80 정도 나옴. 본인도 기적과도 같다고 너무나 고마워 함.	<b>4예 - 흉통</b> 원인 모를 가슴통증으로 25년간 온갖치료 무효과 여기서 한약 복용후 1개월 후 모든증상 사라짐 남편 할 어떻게 이런일이 이세상에...	<b>5예 - 대상포진</b> 대상포진으로 너무나 따갑고 가렵고 힘들어했음 한약 복용후 1주일 정도후에 거의 증상이 사라졌음 너무나 감사해 함.
<b>6예 - 요통</b> 고령의 할머니 허리통증으로 구부리지도 못하고 괴로움 호소, 특수침 맞은후 15분후 별떡 일어났다. 앉았다하면서 원 세상에 어떻게 이런일이...	<b>7예 - 불임증</b> 15년 환자가 찾아와서 임신이 안됐다가 한약 복용후 아기 낳아서 너무나 감사해 함. 이때 한의사 보람을 느낌	<b>8예 - 현기증</b> 3년간 너무나 어지러워 앞도 안보일 정도로 한약 복용후 1주일 정도후에 그 증상이 사라짐. 정말로 고맙고 또 고마워 함.	<b>9예 - 성인병</b> 할아버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중성지방으로 수년간 약 복용 3개월 치료후 약을 다 끊었음. 병원에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일이...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말함.	<b>10예 - 피부병</b> 3개월간 피부병으로 온갖치료 무효과 본원에서 치료후 그 무시무시 살벌한 피부가 뽀얗게 나타나 이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에 감탄.
<b>11예 - 부인병</b> 한 여성이 찾아와서 자궁수술 해야 된다고 걱정, 한약 2재 복용후 병원검사에서 모든것이 정상, 수술 안해도 된다고 판정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 함.	<b>12예 - 전립선</b> 전립선으로 2번이나 수술후 피가 소변에서 철철, 정말 무섭고 두려워서 잠을 꼬박 못잠. 여기서 한약먹고 침맞고 피가 뚝 멈춤. 참으로 한약 대단하구나 스스로 감동 또 감동...	<b>13예 - 성장부진</b> 어린아이가 밥도 안먹고 자라지도 않고 너무나 걱정 여기서 한약 복용후 너무나 밥을 많이 먹고 정말 믿을 수가 없다고 감사에 또 감사..	<b>14예 - 좌골신경통</b> 너무나 심한 좌골신경통으로 엉덩이가 뽀개지고 다리가 저려서 피 말리고 이가 갈린다고 별치료 다 해봤지만 무효과, 여기서 한약먹고 침맞고 정말 믿을 수 없이 그 고통 사라지다니...	<b>15예 - 치질</b> 밥 못먹고 변비, 설사, 치질 심장이 빠근 죽을것 같은 이 증상 사라지니 세상이 다시금 고마워짐

**청한의원** 714 636 1412 (24hrs) 714 349 7995  
 9355 Chapman Ave. #108 Garden Grove, CA 92841

## "특별 절호의 기회!" 놀라운 당뇨 신선단 2명 사면 1명 FREE! 당뇨병에 희소식!!



### 왜 당뇨신선단이 좋은가?

100% 순수한 천연 생약으로 근본적으로 혈당조절을 도와주며 혈액순환과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인체의 자생능력을 도와 스스로 인체가 균형을 잡아 증상개선을 시킴. 특히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갑자기 기운이 떨어져 힘든증상, 눈이 침침하고 목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손발이 저릴때 적극 추천합니다. 당뇨병을 오랜시간 약을 복용하면서도 합병증으로 심장병, 뇌경색, 눈이 잘 안보임, 다리괴사절단,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 신경염등으로 무척 고생하는데 혈관이 경화되고 노화되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서 즐기거나 해방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과 운동으로 무척 노력하지만 그리 쉽지가 않는데 당뇨신선단은 자주 배고픈 증상, 저혈당증상을 도와주고 체중조절 및 복부 비만을 줄여주고 혈당이 서서히 떨어지면 의사선생과 상의하에 서서히 알약을 줄여주며 많은 경우에 당뇨초기나 중기의 경우에 궁극적으로 약에서 어느정도 다 벗어나는 경우가 됩니다.

**아십니까?** 약에서 해방되어서 건강한 정상혈당을 유지하면 그 무서운 합병증에서 미래의 두려움, 걱정, Stress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많은 당뇨환자들이 대책없이 약에만 의존하다 시간이 지나서 눈이 안보이고 신장투석하고 다리절단, 심장병, 뇌졸중으로 무서운 앞날을 기다리지 말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고 현명한 선택으로 미래에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복용사례> LA북쪽 Valley에 사는 Mr. Lee씨는 당뇨로 15년동안 알약을 매일 4알을 복용하면서 눈도 잘 안보이고 이제는 합병증이 온다고 무척 걱정했는데 신선단 복용후 거의 알약을 안 먹고도 아침공복 혈당이 120정도± 되서 정말 믿을수가 없을 정도로 기쁘다 말하면서 특히 병원에서선 이제는 인술린 맞아야 한다고 했는데 다 끊고도 수치가 정상이 되니까 의사 선생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경우라고 같이 축하해주었다고 말했고 또한 체중도 10LB 정도 빠지고 기운도 최고인 상태로 너무 기뻐했습니다. 특히 의사선생이 어떻게 이런일이 생길수 있나 했는데 주위에 친구 형제중에 알약도 3알 정도인데도 레이저수술 몇번후에 눈이 잘 안보이는분들이 있는데 하루 빨리 권해주고 싶고 아픔에서 벗어나는 건강한 삶을 위해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Diabetes damages the endothelial of the arteries, choking off blood flow to the hear(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뇨병은 혈관 내역을 손상시키고 심장의 혈관흐름을 막히게 된다) 그렇습니다. 더이상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합병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그 무섭고도 무서운 시간에서 자유롭게 못하고 슬프고도 슬픈 후회가 되는 시간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정말 그 어디서도 보지못한 당뇨신선단과 함께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가지시고 노력하십시오.

더 자세한 사항은 [www.shinsundan.com](http://www.shinsundan.com) 을 참조 / 24시간 주문 전화 714.636.1412 / 대리점 하실분, 돈 버실분 전화요망

# 영국 교계 지도자들, 함께 기도하며 협력

##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변화 만들 수 있을 것”

영국에서 폭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교계 지도자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각) 런던 북부 토트넘에서 시작된 폭동은 인근 지역을 넘어서 버밍햄, 리버풀, 브리스톨, 맨체스터 등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계속된 폭력, 약탈, 방화로 사망자까지 발생한 가운데, 현재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를 떠오르게 할 정도로 극도의 대혼란 가운데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에 현지 정계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교계도 기도로 힘을 보태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는 보도했다.

9일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에서는 성공회, 가톨릭, 감리교회, 개혁신교회, 오순절교회 등 교파를 초월한 교계 지도자들이 모인 철야 기도회가 열렸다.

이 기도회에는 데이빗 레미 의원 등 토트넘 지역 정치인들도 참석해 기도하고, 교계 지도자들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성공회 런던 교구 피터 위틀리 주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희망까지 점령하지는 못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희망을 나누며, 토트넘을 재건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토트넘 지역 성공회 교회들은 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식사와 물, 잠잘 곳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위틀리 주교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는 모든 피해 주민들을 향해 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은 종교와는 상관 없이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복음연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긴급 기도 호소문을 발표하고, 영국 전역의 교인들이 기도와 함께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로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호소문은 “우리 교인들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영국 사회로 나아가길 것을 희망하자며 이를 위한 기도도 호소했다.

지난 4일 토트넘에서 한 흑인 청년이 경찰이 쓴 총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시작된 항의 시위가 과격화되면서 일어난 폭동은, 인종 갈등, 빈부 격차, 높은 실업률, 복지예산 축소 등으로 인해 높아진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그 배경이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정권에 대한 정당한 분노 표출이라고는 보기 힘든 수준의 폭력, 약탈, 방화 등 범죄 행위들은, 주로 10~20대 젊은이들에 의해 충동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 방치되어 온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각성도 일으키고 있다.

손현정 기자  
hison@chtoday.co.kr

# 아프리카, 1980년대 이후 첫 기근으로 고통

## 폐쇄 국가인 에리트리아 상황 가장 심각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UN이 아프리카에 기근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근의 원인은 심각한 가뭄으로 알려졌다.

1천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이 기근의 진앙지는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다. 인근에 있는 에리트리아도 자국의 정치적 상황만큼이나 기근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나 에리트리아는 자국의 식량 부족 상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30년간의 내전을 겪고 지난 1993년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한 에리트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독재적이며 폐쇄적인 나라가 됐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에리트리아의 주민 530만 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의 주장은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소수의 아파르(Afar) 유목민이 거주하고 있는 에리트리아의 다나킬(Danakil) 지역의 기근이 가장 심각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리트리아 정부는 다나킬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리트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에리트리아를 탈출한 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프위키(Afwerki)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있다. 축구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탄자니아에서 온 에리트리아 축구 선수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고, 에리트리아 의료계 종사자들이 수단에서 난민을 신청했으며, 에리트리아 해군 수병들이 예멘으로 탈출한 사건도 발생했다. 심지어는 에리트리아의 한 고위 관리도 자국을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리트리아 정부는 해외로 탈출한 이들의 가족이나 탈출에 실패한 자들을 처벌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외국의 정부로 하여금 에리트리아 난민들에게 난민 자격을 인정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에리트리아를 탈출하는 행렬은 오히려 더욱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에티오피아는 자국의 반군 조직들과 분리주의자들이 에리트리아와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UN에 에리트리아에 대한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반면 독립 이후 에리트리아에는 호주와

캐나다의 광산 업체들이 금과 구리 아연을 채굴하며 아프위키 대통령의 정부에 엄청난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무장 단체 샤باب(Shabab)이 에리트리아와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고 있지만 기근으로 인해 이들이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일축해 버리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2010년 개정된 Operation World는 에티오피아의 인구가 8,498만 명이며, 에티오피아 최대 종교는 기독교로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5,156만 명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기록했다. 반면 Operation World는 에리트리아와 소말리아의 최대 종교는 이슬람으로 소개했는데, 에리트리아의 무슬림 공동체의 규모는 전체 인구 522만 명 중 50.3%인 263만 명이며, 소말리아는 전체 인구 936만 명 중 99.7%인 933만 명이 이슬람을 믿고 있다고 기록했다. 소말리아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0.3%인 3만 명 정도에 불과하며, 에리트리아의 기독교 인구도 전체 인구의 47.3%인 247만 명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선교연구원 파발마

파키스탄에서 수해를 입은 기독교인들이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파키스탄 남부인 펀잡 주에서는 작년 대홍수로 수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는 약 20만 명의 기독교인들도 있다. 그러나 지난 달 주 정부가 수재민들을 위한 주거지와 경작지 분배를 모두 마칠 때까지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했다.

정도는 시정됐다. 그러나 토지 분배 문제는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이제는 분배가 다 끝나버렸다”고 한탄했다.

한편, 주 정부는 토지 분배에 앞서 기독교인 수재민들의 명단을 조사해왔지만, 이는 형식상의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결과로 증명된 셈이다.

현재 파키스탄 내 소수종교 인권 운동가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펀잡 정부가 파키스탄 헌법

# 파키스탄, 수해 복구 지원에서 기독교인 제외

특히 펀잡 주에서는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 대부분이 빈곤 계층이기에 기독교인 수재민들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는 조기 구호식량과 물품 분배에서부터 토지 분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원에서 기독교인들을 제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기독교인 수재민인 코드 아두는 “처음에는 구호 식량과 물품 분배에서도 우리를 소외시켰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일자 어느

손현정 기자

# 스타벅스 CEO, 동성애 논란에 월로우크릭교회 강연 취소

스타벅스의 최고경영자 하워드 슐츠가 미국의 대표적 대형교회인 월로우크릭교회에서의 강연을 하루 전날 돌연 취소했다. 그 이유는 동성애 지지자들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로우크릭교회는 매년 글로벌 리더십 서밋(GLS)을 열고 있으며, 이 자리에는 각 분야의 권위있는 리더들이 강연자로 나서서 도전을 준다. 전국 50개주, 114개국이 영상을 통해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다. 올해

행사는 8월 11일 시작됐으며 현재 7천 명이 직접, 6만5천명이 영상 생중계로 참여하고 있다. 슐츠가 강의를 취소한 이유는 동성애 지지자들이 “글로벌 리더십 서밋을 개최하는 월로우크릭교회는 반동성애단체인 엑스더스 인터내셔널의 후원단체였다”면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워싱턴 DC에서 슐츠의 GLS 참석 반대 운동을 펼쳐온 애서 휴이는 현재까지 약 7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우)와 월로우크릭교회 담임 빌 하이벨스 목사(좌)

게다가 이들은 뉴욕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사실인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측은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고 답했다. 월로우크릭교회 담임 빌 하이벨스 목사는 “우리 교회는 그 누구에게도 반대하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동성애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대로 모든 성적인 표현은 한 남성과 한 여성에게서만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여정을 동시에 존중한다. 이런 점을 그 서명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말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성애 지지자들은 GLS에서 강연하기로 한 미셸 리 전 교육감에게도 불참을 요구했으나, 리 교육감측은 이를 거부했다.

박성규 기자

## 2011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1년 8월 29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 www.chungycpa.com )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130 Wilshire Bl, #405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션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연합회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ch.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갯스윌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4부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

**그레이스웨이브교회**  
 담임: 송규식 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영아예배 오전 10:40  
 주일학교 오전 9:30 제자훈련 오전 9:30  
 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1  
 T. (714) 699-021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20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 오후 7:2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업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 오후 7:30, 1부 Youth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교동,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아(태)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원 목사, MARY KIM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4055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달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 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교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 주일예배 -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오전 1부 예배 11시, 2부 11시)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8:00  
 중교동부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라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069 S. La Brea Ave, LA, CA 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미주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영아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Alpha 저녁 7:30  
 중교동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http://www.visioncc.org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더운터 471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새벽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전 10:30  
 5부예배 오후 2:00 오후 12:15, 2:00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

**시온성증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씨니사이드교회**  
 담임: 조인수 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영아예배 오전 10시  
 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1:45  
 2부EM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3부영아 오후 12:3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5: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염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 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www.kccoc.com

**요셉선교회**  
 담임: 정상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2728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45-4090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1 Glen Avenu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류종길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월-토)  
 1818 S. Western Ave., suite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2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춘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화-금)  
 중교동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홍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십)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정오 12:30 분당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2,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 교회 장부 열람 시대... 지혜롭고 투명한 관리법은

### “영수증 못 받아도 기록” “안 보여주면 더 문제” 계좌이체, 카드 한도 설정 등 목회자별 다양한 해법 공개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보여줘서 더 문제 생겨

투명한 교회 재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곤란함을 호소하는 교회가 적지 않다. 교회에는 선교사 지원이나 이슬람·공산권 선교지원, 특별구제 등 영수증을 남기거나 공개하기 쉽지 않은 '특수목적비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교회 A목사는 이에 대해 “예를 들어 해외에서 헌신하다 잠시 교회에 들른 선교사들에게 차비조로 5-10만원씩 주면서 생색내는 것처럼 영수증에 사인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회는 작복이나 횡령이 전혀 없었지만, 1년간 이처럼 '영수증 처리'를 하지 못한 금액을 계속해 보니 무려 5천여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중형교회 목회자들도 비슷한 문제를 호소한다. B목사는 “가장 곤란한 경우는 목회자 입장에서 많지 않은 금액을 구제하면서 당사자에게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는 경우”며 “대외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 접대비나 활동비, '뽐위유지비' 등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 영수증 처리를 그때그때 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중형교회 부목회자인 C목사는 “교회 행정이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특히 교육부서들은 예를 들어 수련회 예산을 1백만원 청구했다면 지출계획서만 제출하고 그 후에는 감감 무소식이고, 감사가 없어서 그런지 제대로 행정처리를 하지 않는 편”이라고 증언했다. 결국 '자기 돈', 심지어는 빚까지 내서 교

회를 운영하는 개척교회들을 제외하면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운 교회들이 많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장부 열람'을 빌미로 교회 분열과 사유화, 반대파 제거 등을 시도하는 세력이 생기면서 또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지난해 제자교회 사태와 관련, 성도들이 교회 재정과 관련된 장부와 통장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해 최근 분당중앙교회도 같은 상황을 맞았고, 이는 앞으로 교계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성도들이 요구하면 교회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중형교회 D목사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교회는 영리법인이 아닌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결정이 아닌가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물론 이미 매달 교회 재정상황을 공유하고 인터넷 등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교회들도 적지 않다. 서울지역 대형교회인 E교회도 매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 교회 관계자는 “선교사 지원금 같은 경우도 위원회 심사 및 승인을 거쳐 계좌이체로 진행한다”며 “감사로 등을 현금으로 드릴 때도 반드시 영수증을 받는다”고 밝혔다.

스스로 나름의 '해법'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한 B목사는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고, 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다”며 “개인적으로 후원이 필요한 곳이지만 꼭 교회 성도들 현금으로 하는지가 마



교회 장부를 열람하고 있는 모 교회 성도들 모습

음에 걸리는 경우에는 본인 월급에서 지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를 생각처럼 재정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씩은 있다”며 “서로 더놓고 자연스럽게 어디에 썼는지 묻고 답할 수 있으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꼭 영수증 처리가 안 되더라도 사용내역을 명시해서 공개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조언한다. 한때 기운실을 이끌었던 손봉호 석좌교수(고신대)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목회자나 재정을 사용한 담당자가 어디에 썼다고 기록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말이 되면 된다”며 “장부 공개는 영수증 처리가 꼭 필요한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저곳에 그러한 돈을 쓴 만하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역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는 “교회가 재정을 갖고 범죄에 사용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쓰지 않고 있으므로 굳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안 보여주면 교회 문제를 소송 등 밖으로 꺼내들기 때문

에 더 문제가 생기므로, 원한다면 (장부 열람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사실 보여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보여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영수증 첨부이 어렵다면 간접 증빙을 하면 된다”며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없다 해도, 투명성(장부 공개)을 사회가 요구하면 사회보다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법 전문가인 김영훈 장로(교회법연구원장)는 “교회도 원칙적으로 회계법에 맞게 정리를 다 해야 하고, 영수증이 없으면 돈을 사용한 사람이 지불확인증이라도 써서 재정 처리를 정확히 하는 게 좋다”며 “자신이 착복한 게 아니라도 영수증이 없으면 나중에 자기가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사후에라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로는 “어디에 썼다고는 비밀로 하더라도, 지불을 누가 했다는 게 장부상에서 정확히 나오면 된다”며 “그런 액수가 많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그러한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박병진 목사(한국교회헌법문제연구소)는 “목회자가 교회를 은퇴하거나 사임하면 그 교회 교인도 아니고 노회 소속 회원일 뿐이지만, 자기가 시무하던 교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다”며 “흔히 맨손으로 교회를 일군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먼저는 이같은 목회자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고, 목회자들의 신앙과 품격, 자질이 너무 저하된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현장 목회자들은 교회 재정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 목회자는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상당한 액수의 재정을 지출하기도 한다”며 “물론 교회 재정은 당연히 투명해야 하지만, 그 투명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교회가 영리기관처럼 비쳐서 구원을 위한 다른 활동들이 가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유순택 여사를 비롯해 리셉션 참석한 주요 내빈들의 모습 ©이대웅 기자

## UN 퍼스트레이디와 함께하는 '아프리카 말라리아 퇴치'

### 월드휴먼브리지, 캠페인 후원자 리셉션 개최

만의 비극으로 그치지 않고, 해당 사회와 국가 차원의 커다란 재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아프리카에서만 말라리아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따른 비용이 매년 1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말라리아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빈곤을 해결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오늘 행사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실천하는 행동을 통해 말라리아 퇴치라는 목표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과거 국제사회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가로 성장한 한국은 많은 개도국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사회를 위해 보다 많은 지원을 베풀어야 함은 물론, 말라리아 퇴치와 새천년개발목표는 아동

과 여성, 여타 취약계층의 생명을 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케 하는 숭고한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분당만나교회에서 주도하는 NGO 월드휴먼브리지(대표 김병삼 목사)는 지난 5월 유엔 본부를 방문해 살충처리 모기장을 위해 1억여원을 전달했고, 유엔과 총 10억원씩 매칭 펀드를 조성해 총 20만장의 모기장을 아프리카에 보내기로 했다. 이날 리셉션에서는 김정서 목사(예장통합 총회장)의 개회사, 김자연 목사(왕성교회)와 김영진 장로(국회의원의 환영사,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반기문 사무총장 재임 축사 낭독, 반 사무총장 재임 축하 케의 커팅, 반 사무총장 축사 대독, 네츠고 캠페인 동영상 및 경과보고, 기금전달

식, 구세군 타종식 등 다양한 순서가 마련됐다. 김자연 목사는 “한기총도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말라리아 퇴치에 총력을 기울여 아프리카에 큰 구원이 미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리셉션에는 이들 외에도 이정의 목사(신촌성결교회), 손인웅 목사(떡수교회), 양병희 목사(한장총 대표회장), 김종성 목사(기장 총회장), 홍재철 목사(경서교회), 민상웅 사장(극동방송), 이기창 예장합동 부총회장(전주북문교회), 허귀호 목사(GMS 이사장), 박원영 목사(해피나우 사무총장), 조영진 목사(분교회), 곽주환 목사(베다니교회), 교단 총무단(이치우 목사·조성기 목사·최충하 목사 등) 등이 참석했다. 또 리셉션에 앞서 2011 미스코리아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도 거행됐다.

이대웅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부인인 '유엔 퍼스트레이디' 유순택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Nets Go(넛즈고)!' 캠페인 후원자 리셉션이 1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현재 하루 3천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는데, 이중 90%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다. 말라리아는 백신이 없어 살충 처리된 모기장 설치와 가장 효과적인 퇴치 방법이다. 살충처리 모기장은 모기가 사람을 무는 것을 막

고, 모기장에 접촉하는 모기를 죽일 수 있어 말라리아 전염을 90% 가까이 막을 수 있다 고 한다. 살충처리 모기장은 5인 기준 가족을 최대 5년간 말라리아로부터 지켜줄 수 있어 유엔재단에서 Nets Go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만원만 내면 아프리카로 모기장 1장을 보낼 수 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순택 여사가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말라리아로 매년 80만명의 귀중한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데, 말라리아는 단순히 희생자 가족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까?**  
자동차의 모든 문제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워싱턴 바디샵** 으로 연락하세요.

30년 경력으로 정상가의 50%만 받습니다.

1800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워싱턴길 버몬과 노르만디 사이)

**323.732.9693**

# 한-일관계 좋아지고 있었는데... 선교에도 악영향 오나

## 울릉도 방문 시도와 反 한류 등에 선교계 우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얼마 전 일본 의원단 울릉도 방문 시도 사태, 그리고 일부 일본 국민들의 반(反)한류 시위 등으로 한일 양국 관계에 또다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양국 갈등은 정치권을 넘어서서 국민들 간의 감정 다툼으로도 확산되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교회가 일본선교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 민족감정으로 손꼽히는 만큼 최근의 상황은 일본선교에 매진해 온 단체들과 사역자들에게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동일본 재난 피해를 도우며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일본에 대한 우호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교회들도 일본선교에 보다 관심을 보이고 있던 시기에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안타깝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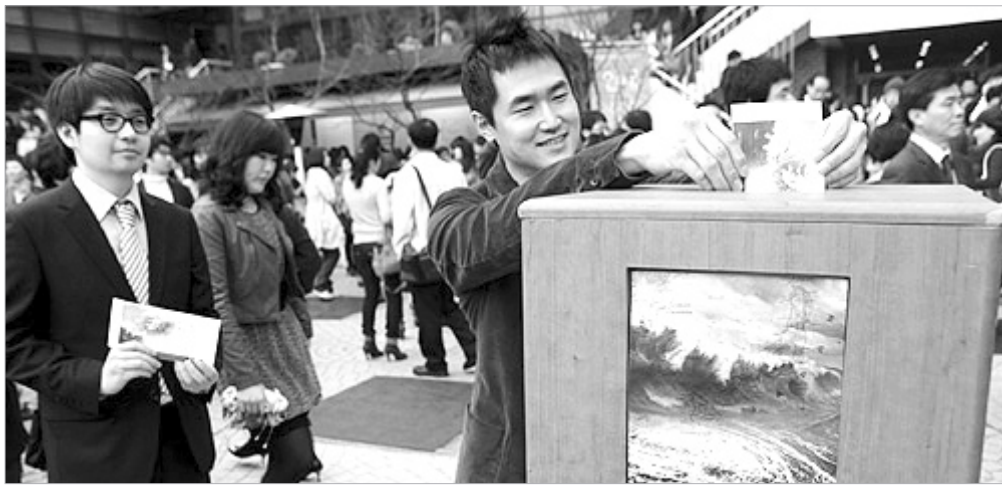
일본복음선교회(JEM) 윤성혜 선교사는 "잠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본 선교사 입장에서 늘

어려운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또 "동일본 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일본인들에게 한국교회가 보여준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일본선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심을 기대하게 됐지만, 여전히 한국교회에 일본선교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윤 선교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일본선교를 대할 때 민족적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선교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일본선교를 통해 일본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본선교회(IFM) 이승목 고문 역시 "이런 처음은 아니지만 일본에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고 나서 한국에서 놀라울 정도로 도움이 손길을 보내고,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



일본 대지진에 대한 한국인과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한일관계가 어느 때보다 우호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으나, 최근 잇따라 다시 양국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일본 선교에도 타격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 사랑의교회에서 모금을 하던 모습

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본선교 사역자의 입장으로서 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도 한다고 이 고문은 말했다.

그는 또한 "당연히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일본선교에 악영향이 있다"며 "나부터가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최근 같은 일이 벌어지면 반감이 생기고 괴로워진다. 일본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선교 대상으로 보기는 하지만 일본을 정말 좋아하지는 않는 분들이 많다. 일본선교에 가장 큰 걸림돌이 민족감정인데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문은 한국교회가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본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한다며, "우리가 더 큰 죄를 짓고도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데 일본인을 볼 때는 천국 시민이 아닌 한국 시민의 시각으

로만 보는 것 같다. 일본에 대한 진정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덧붙여, "일본의 천황 숭배의 핵심인 태양신 숭배는 가야국으로부터, 잡신 숭배로 발전하게 된 불교는 백제로부터 전래했다는 점을 볼 때 일본에 영적 황무지를 열어 놓은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며 "한국 교인들이 이를 깨닫는다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기에 이 기회를 빌어 이를 꼭 많은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의 상황들에 대해 "일본에서 항상 있어 온 일부 극우파들의 움직임이 정치적 이유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힌 두 사람은,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이들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유연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손현정 기자

# 1천2백여 사모 더욱 목회자 세우고 성도들 품기를



서울 예정교회에서 1천2백여 사모들이 모인 가운데 11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 제16회 목회자 사모 세미나 대성황

해 사모들을 위로했다.

특히 10일 강사로 나선 립택권 박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지금 옆에서 나와 함께 울고 웃는 사모들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통해 나타나신다.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모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 시대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특히 사모들은 교회에서 늘 말씀을 듣고 또 전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말씀과 멀어질 때가 많다. 이 세미나에서도 늘 들던 말씀을 듣고 늘 하던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진짜 말씀, 진짜 기도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번 집회를 인도한 설동욱 목사는 "사모님들의 눈물을 통해 그분들의 아픔과 치저 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면서 "참석한 사모님들의 은혜 받는 모습과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해마다 참석하신 사모님을 마음껏 울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예정교회에서는 '제15회 전국 목회자 자녀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 세미나는 연중 겨울과 여름 2회가 진행되는데, 목회자 자녀 중에서도 겨울은 청소년 중심이고 여름은 청년(20세 이상) 중심이다.

세미나 강사로 는 문강원 목사, 다니엘길 선교사, 이선일 원장, 허은정 아나운서, 하귀선 선교사, 최봉구 전문위원, 설동욱 목사 등이 나선다. 이 세미나의 장점은 서로 비슷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여러 목회자 자녀들이 만나 유대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상처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치유하며, 세미나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나간다는 점이다.

설동욱 목사는 "한국에 수많은 세미나들이 있지만 목회자 자녀들만을 위한 세미나는 드물고, 특히 청년이 된 목회자 자녀들만을 위한 수련회는 전무하다"며 "이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 자녀들 스스로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헌신하며 더 큰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영 기자

# 텔런트 변정수가 소개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법 4가지

## 밀알복지재단 '회색리본달기 릴레이'에 참여

최근 최근 드라마 애정만만세로 돌아온 텔런트 변정수가 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변 씨는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의 장애인식개선사업인 '회색리본달기 릴레이'의 스타인터뷰를 통해 "다음 세대에는 장애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어른들의 태도"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토로했다.

밀알복지재단 '회색리본달기 릴레이 캠페인'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인식개선캠페인이다. 회색리본의 의미는 흰색과 검정색이 합쳐져 만들어진 회색과, 그들을 하나로 묶는 리본의 의미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의미한다.

변 씨는 '회색리본달기 릴레이 캠페인' 스타인터뷰에 참여하여 장애인 사랑 실천방법에 대한 네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변 씨가 추천하는 장애인 사랑 실천방법은 일상생활 하듯이 같이 대화 나누고, 먼저 다가가며, 경청하고, 자녀들에게 장애를 허락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헌신하며 더 큰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씨는 "어른이 먼저 아이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



텔런트 변정수가 스타인터뷰를 하고 있다. ©밀알복지재단 제공

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어른들이 먼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장애인식개선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밀알복지재단 최미경 국장은 "변정수 씨의 '회색리본달기 릴레이 캠페인' 스타인터뷰의 참여로 부모로서의 인식개선 참여와 자녀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태진 기자

# 눈이 침침하십니까?

**[죽침]** 시력저하, 노안, 안구건조증, 누루증,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죽침은 대나무로 된 재질로써, 눈 주위의 근육과 경락을 자극하여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시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죽침의 우수성은 그동안 본원에서 치료를 받은 많은 분들에게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원 대학 교수  
3030W. Olympic Blvd., #202-203, Los Angeles, CA 90006  
(삼호관광 몰 2층)

**초진 무료! T213-380-0853**

진유철 칼럼

#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진 유 철  
나성순복음교회 목사

이 세상을 살며 고난을 겪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날 때 반응과 태도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반응과 태도에 의해 우리의 인생의 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 가정이 고난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도 없이 오빠를 의지하고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라고 할 만큼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기동인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급했는지 하루 길에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는 않으시고, 즉 고난의 문제는 해결해주시지는 않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 인간이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

고 있는 급박한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 태연하게 하신 말씀치고는 영똥해 보이는 말씀이십니다. 대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고서야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냐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고난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독사(doxa)'인데, 이 단어의 어원인 동사 '도케오'는 세 가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달리 인간에게 이성이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 본능을 다스리고 욕망을 이겨내어야 하는데 만약 생각이 없으면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육체와 세상이 하는 대로 살다가 아픔과 실패를 겪게 되면 그 때서야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

다. 그제야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까지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병석에 누워서 어떻게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탕 할 수 있을까 곱씹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 생각하긴 하는데 언제나 옳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꾼들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사이 없이 생각합니다. 염려와 근심의 생각도 밤을 새우며 하게 됩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생각에도 많은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릇된 생각이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아프지 않고서는 잠든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고백은 절대 거짓이 아닌 진실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업적을 찬양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면 그것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건강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능력이나 지식이나 업적이 나를 붙들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한함을 통감하는 사람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 안에서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때로 임하는 질병이나 실패는 결코 불행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김세환 칼럼

# 주인이라면



김 세 환  
LA연합감리교회 목사

이 그들의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탈미드 훅헨"은 공무원이나 행정직은 아니었지만, 권위와 영향력에 있어서는 수상 못지 않은 막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탈미드 훅헨"은 지혜를 수단 삼아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또 다른 권력자 같은 느낌을 주지만, 사정을 좀 더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은 않습니다. 누리는 것보다는 잃어버려야 하는 것이 배는 더 많습니다. 그는 항상 어려운 일, 낯선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술선수범해서 합니다. 군복무나 전쟁 같은 것도 제외 먼저 지원해 나아갑니다. 고난의 자리 첫 줄에는 항상 그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이기 때문입니다. "훅헨"들은 누구나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자원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지성과 신앙을 가진 지도층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拂해야 하는 대가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가장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에게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소위 "특권층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뜻을 가진 "오블리스 노블리주"는 오직 주인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정신입니다. 나그네나 떠내기는 절대로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몫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의 것이 아니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행 중에 호텔에 투숙해서 수건이나 쓰던 집기들을 잘 정리해 놓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내팽개쳐 버립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와 주인은 발상부터 다릅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들은 후손들을 위해 미래를 염려하며 책임 있게 살아갑니다.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이나 방문자들,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은 절대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부평초(浮萍草)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이 공동체의 주인인가?"를 알아보려면 그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걱정하고 현재를 책임감 있게 살아갑니다. "남도 누리는데,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자원하여 헌신하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는 사람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청년들을 사랑하고, 노인들을 공경하는 사람들!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을 다독이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항상 웃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 그가 바로 교회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주인입니까? 그냥 지나쳐 가는 손님입니까?"

김한요 칼럼

# 난 아직 미국인이 아니다



김 한 요  
세리토스장로교회 목사

나는 귀화하여 미국 시민이 되었다. 그때 선서했던 말이 생각이 난다. "...내가 소속했던 모든 국가에 대한 충성을 절대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포기(abjure)하며...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장할 것을 선서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abjure'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사전까지 찾아보았던 기억이 있다. 그 뜻은 포기한 이상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었다. 만약 미국과 한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단연코 나는 미국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미국시민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선서를 하고 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 시민이 아님이 확실하다. 지난 8일 신문을 읽다가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를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한다는 기사에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반납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이 축국경기를 해도 한국을 응원하고, 아직 미국 애국

가는 첫가사 뿐이 못 외우고, 한국 애국가는 부를 때마다 가슴이 몽글하여 부르는 나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은 시민권을 잘못 준 것 같다. 내가 만약 미국 대통령이라면 나 같은 사람에게 자유와 용맹의 나라(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시민권과 그 특혜를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나의 모습이 시민권 받았을 때 판사 앞에서 선서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미국에 대한 충성을 다짐해도,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박태환과 펠프스가 결승에서 붙는다면 나는 보나마나 박태환을 목이 터져라 응원할 것이 틀림이 없다.

사도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다(빌 3:20). 우리는 분명 하늘 나라에 귀화한 시민들이다. 그런데, 요즘 내 모습이 미국 시민이면서 한국만 위하고 한국만 응원하는 모습 같아서 죄송하기 그지없다. 미국에게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하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 복사기 무료

## 칼라카피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 FBM

##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http://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양성필 칼럼

“인생을 점(占)치지 마십시오.



양성필 베델한인교회 부목사

한국에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크리스찬 대학 앞에 점집이 200개가 있습니다. 반경 1마일도 안되는 대학가 앞에 점집이 200개라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운다는 대학생들이 무당을 찾아가 앞날을 물어보고, 재미삼아 점을 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크리스찬 대학가 앞에 점집이 200개라는 것은 헛웃음이 나오게 만듭니다. 한국에는 유난히 점집이 많습니...

당이 와서 내뿜으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귀신이 나간 듯 하지만, 최영장군 귀신이 또 그 사람 안에서 요동을 치면, 최영장군 귀신을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최영장군 귀신보다 더 강한 귀신은 강감찬 귀신이라나요? 강감찬 귀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이 와서 최영장군 귀신을 내뿜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 끝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습지요? 귀신이 귀신을 내뿜는다? 최영장군 귀신도 없거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그때 말도 되지 않는 그들의 논리에 주님께서 같은 나라사람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느냐? 같이 망하지 않겠는가. 가정에서 서로 식구끼리 싸우면 그 가정이 온전히 남아 있겠는가? 같이 망하지 않겠는가.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뭐 대학가 앞에서 점치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열을 올리는가 하겠지만, 실제로 제 제자들의 하나가 토요일 저녁에 혼자서 '오멘'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쇼크가 와서 간질이 왔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악령은 그런 식입니다. 별것도 아닌 점 하나를 가지고, 별것도 아닌 영화를 통해서, 별것도 아닌 거짓말을 통해서 그렇게 서서히 다가오는 겁니다. 스캇 펙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도 스캇 펙은 악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다는 겁니다. 한 어린 남

자 아이가 우울증에 방황해서 상담을 받던중에 스캇 펙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어린 남자 아이의 생일이 부모가 선물을 주었는데 열어보니 실제 권총이더라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의 형이 자살을 했는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 권총을 받았을 때 드는 생각이 뭐까요? '나도 형처럼 죽으라는 뜻일까?' 하고 당연히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스캇 펙이 묻습니다. "아이가 권총을 받았을 때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그 부모들은 "그게 뭐 어때서요?" 하더라 합니다. 너무 기가막힌 상황들을 보면서 스캇 펙 박사가 내린 결론은 '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의 모습은 이제 정치, 경제, 교육, 심지어 종교에도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불장난을 하지 마십시오. 점집에 찾아가는 크리스찬들도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미래를 알아서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믿음의 길을 뒤로 하고 거짓의 영에 속지 마십시오. 이정도 좁아야 하면서 찾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절거워 하는 자 있느냐 주를 찬송할지라. 어느때든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의 길에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송택규 칼럼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송택규 목사 세계크리스찬영성 대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경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번역해야 옳은 것이다.

님(창1:1)과 그 말씀을 시행하시는 성령님(창1:2)만이 기록되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가? 예수님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므로 아버지의 품속(요1:18)에서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돕고 계셨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분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독생하신 예수님이시며 바로 그분이 말씀이요 곧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다. 이 말씀이 주안에 서 나온 것을 하나님의 Logos로 들을 때 생명이 되는 것이다. 유한한 타락한 인간이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성령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 주셔야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나 언어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보자. '해방'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보편적 보통명사다. 그런데 이 짧은 단어 한마디가 인류에 희망을 주고 미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선언이다. 이 해방이란 말 한 단어는 흑인노예들에게는 생명적이었고 소망이었으며 구세주였다. 그들에게 찾아온 그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노예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무감각하고 아무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노예였던 자신들에게는 소망이요, 축복이요 생명의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또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받아드리느냐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4: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 하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인격을 세워 승리케 하는 삶을 살게 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즉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이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태어 나셨음을" 말하고 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셨던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다. 독생자 예수님은 창조과정에서는 기술이 안 되었다. 창조 때에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험 칼럼

Q 메디케어와 메디칼로 치료 치료가 가능?



폴선 시니어 전문 플래너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이나 장애인의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를 가지고 계시어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65세가 되는 생일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소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946년에 태어나셨던 분들이 올해(2011년)에 생일달 3개월 전에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메디칼은 주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메디칼 가입이나 수혜자격에 대한 규정은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취득하신 분들은 의료비용의 약 80%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별도로 처방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 처방약 보험 파트D 가입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파트D 처방약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평생 페널티를 지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플랜은 20%

혜택을 받기 위한 보조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D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병원 입원시 디덕터블이나 입원일 수의 제한이 없고 의사 방문도 무료이며 치료 한방침술 안경 등의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플랜이며 본인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가입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을 간단히 살펴 보면 (1)2011년 처음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받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받으실 분들 (2)메디케어 파트A와 B 동시에 메디칼을 갖고 계신 분들(3)메디케어 파트A와 B를 갖고 계시면서 LIS를 받으신 분들 (4)메디케어 파트A와 B를 갖고 계신 분이 타주에서 LA나 OC로 이사오신 분들 그룹 건강 보험에서 탈퇴하신 분 등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여러 건강 보험회사가 경쟁적으로 다른 혜택의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자격을 갖춘 에이전트와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맞는 플랜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수호천사 보험 (213) 503-6897

- ▶문=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갖고 계신 분들이 2009년 7월부터 치료는 물론 한방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본원은 최고의 교수진과 동영상 강의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수업이 가능하며, 수료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교단에서 목사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특 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한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서를 면제함

구비서류

-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합법적 집 · 차압방지**

\$500 FLAT ★ N.O.T와 N.O.D 전문 ★  
A.I.T.D(WRAP(모게지 "합법양도")  
최장 36개월 연장 "합법거주" (본인파산 불필요)  
★ 각종 민사소송, 불법퇴거소송, 파산법전문 ★  
MERITZ CORP. / 마이클 J.D  
상담 : 888-210-1238

**LA 긴급 출장 자동차 정비**

▶ 에어 컨 수리 아주 저렴 ▶ 도어 고장 (유리 포함)  
▶ 문장금 & 타이어 문제

**LA 용달 & 심부름 센터**  
각종 보험 완비  
(213) 926.1243 / (213) 435.5736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

4월 29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봄/가을학기 속성과정 학생모집 (악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의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윌셔은행 3층)

초기 이만자, 재취업 기술교육

**NEW HOPE CONTRACTION & PAINTING**

APARTMENT RESIDENTIAL COMMERCIAL

- INSIDE REMODELING REPAIR PAINTING
- 전기, 플러밍, 목수, 모든 HANDYMAN WORK
- OVER 20년 경력, 모든 일 WARRANTY 해드립니다.

**Tel. 310-756-9511**

**썬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러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식재료 도 · 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건과료, 각종 공산품 등)
- 참삼 (바베류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Select color - 기독교일보 애독자 특별할인 -

- 이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 상점 및 그라지용 Bottless Shelving
- 마켓용 Gondolas
-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물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질리움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323)855-5687 / (213)200-3050**

**금 최고가 현금매입 샅니다**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소드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튼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였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가나 JJ 플러밍 땀 뚫어요!**

-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 나무 뿌리로 지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 싱크대, 욕조, 변기 등
- 노후된 파이프를 등 파이프로 교체
- 새거나 터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 각종 Faucets, 디스포설,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많은 고객께서 다시 찾는 플러밍입니다.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무료가입 및 설치문의 www.knamedia.com

**1.888.894.8949**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K 전기 LIC 930775**

전기에 대한 모든것!

주택, 상가, 신축 및 증축 (상가 내/외부 조명, 교회, 공장, 식당 등)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신속/정확하게

Tel 310.800.8200 / Fax 310.533.6383

**명 치과 SANG DON CHOI - 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이중창문교체전문**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창문 10개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욕실, 벽, 벽 지하, 창문 물새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결혼꽃 전문 꽃에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 2011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TEL : 213-381-0081, FAX : 213-381-0010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1년 8월 29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월드크리스천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  
대학원 (M.Div) 과정  
통신학부, 목사후보생 모집 및 교육  
유학비자발행 (방문비자무료변경)

TEL: (323) 734-0227 FAX: (323) 734-0053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캘리포니아두란노대학교·신학대학원**  
목회학 · 신학 · 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o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목사 | TEL: (213) 507 - 1933  
1008. S. Kingsley Dr LA, CA. 90006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YUIN UNIVERSITY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TEL : 213-663-8640 FAX. 213-384-7898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TEL : 323-731-9819  
1325 12th Ave. LA, CA 90018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 및 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p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굿바이 Summer 이벤트**

**3개월 무료!** (최대 \$105 상당) **무료!**

행사기간 2011년 8월 31일까지 **마지막 기회! 서두르세요!**

**30일 환불 보장!**

**AT&T, Verizon 가용용 전화 완전대체!**

이런 분들께 이토크비비를 적극 권합니다!

- 집전화를 사용하고 계산 모든 분 (지금 사용하고 계신 전화요금서를 확인해 보세요. 사용을 안하셔도 매월 \$200 초과 됩니다.)
- 평소 미국, 캐나다 지역 장거리 전화 통화량이 많으신 분
- 전화카드로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국제 전화를 거시는 분

**Global Unlimited Plan 글로벌 플랜 \$24.99/월** (월별 사용량 초과 시 추가 요금 부과)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전화 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무료!** My Korea Number 마이코리아넘버\*\* 한국 전화 번호 제공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핸드폰에도 국제전화 가능! 매월 500분 제공

지금 사용중인 집전화 요금, 아이토크비비와 비교해 보세요!

플랜	iTalkBB 글로벌플랜	AT&T Complete Choice Enhanced	Verizon Freedom Value
월간 요금	\$24.99	\$26.00	\$52.99
미국 내 로컬, 장거리	무제한	장거리 추가요금	무제한
한국, 중국, 일본 유선전화	무제한	불가능	불가능
한국 로컬번호 제공	070 번호 제공	불가능	불가능
핸드폰으로 국제전화 서비스	월 500분 제공	불가능	불가능
별도 부가금(수수료 등)	없음	있음	있음
12개월 총 금액	\$299.88 (수수료 포함)	\$312.00 (수수료 별도)	\$635.88 (수수료 별도)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1.800.872.2902

3개월 무료 이벤트 - 프로모션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총 18개월 간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가입한 신규 가입자에 한 합니다. 계약 기간 내 서비스를 예지하는 경우 위약금(\$69.99)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보상을 받은 총금액을 합산해 부과 합니다.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아 넘버를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예지시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계통비 (\$29.99)가 부과됩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및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국제전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 등 미국 영토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http://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는 기존 매장에서 신규 아이템을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전화: **703.349.7216**  
동부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희망을 잃은 어린이들과 함께 합니다.  
T: 562.483.4300 / www.compassion.or.kr

Compassion  
국제선호의 사랑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Hansol Senior Service, Inc.**  
 www.hansolins.com Lic.#0E52100  
 생명보험 • 사업체보험 • 재정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건강보험

We know Medicare



**메디케어 신청?**

메디케어는 65세 생일 8개월 전부터 CMS로부터 메디케어 카드를 발급 받게 됩니다. 만일 65세 생일 3개월 전까지 메디케어 카드를 받지 못한 분들은 별도로 메디케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메디케어 신청 자격은 65세가 되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 혹은 합법적인 미국체류 신분으로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10년 이상의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메디케어 신청시 필요 서류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일, 결혼 기념일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며,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일과 결혼 기념일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한솔 시니어 서비스는 시니어들을 위해 무료로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65세 생일 3개월 전까지 메디케어를 받지 못한 분들은 연락 주시면 메디케어를 신청하여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지만 메디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들은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을 통하여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를 반드시 지불하여야 합니다. (2011년 기준 \$16.40) 그러나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하면 매달 지불하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에서 면제가 되며, 또한 파트 D 처방약을 받으실 때도 원래의 메디케어 플랜에서 지불 하는 것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처방약을 사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한솔에서는 무료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의 가입을 도와 드립니다. 한달 개인 소득이 \$808, 부부 \$1,226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1대, 집 한채, 가재도구, 장례비용 \$1,500까지는 제외됩니다. 개인 자산 개인 \$6,680 부부 \$10,020을 초과하면 되지 않습니다.

**EXTRA HELP PLAN**

본인이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메디칼과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EXTRA HELP 플랜을 통하여 처방약 비용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메디케어에서 지불하는 처방약 금액보다 저렴하게 처방약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메디케어 플랜에서 적용되는 도넛 홀이라고 하는 본인 부담금도 면제 됩니다.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저희 한솔에서는 무료로 EXTRA HELP PLAN의 가입을 도와 드립니다. 개인 한달 소득 \$1,361 부부 \$1,839 이하이거나 개인자산 \$12,640 부부 \$26,260 이하인 분들을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메디케어 HMO 플랜이란?**

HMO 플랜이란 보험 가입자가 주치의를 통하여 모든 의료행위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치의는 내과사이지만 다른 분야의 진료 행위를 받으실 경우에도 주치의 추천에 의해 보험회사의 승인을 통하여 2차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건강보험 플랜입니다. 장점은 의료행위시 본인이 부담금이 저렴하여 추가적인 의료 혜택 즉 치과, 시력검사, 한방침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모든 의료행위가 주치의의 통제를 받고 PA라고 하는 의사그룹과 지정된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플랜입니다. 물론 처방약 플랜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처방약 보험료의 지불이 필요 하지 않고, 매달 내는 의료보험료가 많이 메디케어를 100% 보험 보장하는 플랜입니다.

**메디케어 PPO 플랜이란?**

PPO 플랜이란 보험가입자가 본인이 일반 의사나 전문의를 직접 선택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메디케어의 PPO는 캘리포니아에서만 보장되는 지역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타주에서는 여행이나 친지 방문 중에 의료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6개월을 캘리포니아에서와 같이 PPO로 보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의료행위시 본인이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이 HMO에 비하여 조금 더 많이 지불하여야 하며, 의료행위 발생시 1년에 \$300은 본인이 지불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나 병원의 선택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의 보험 선택은 크게 2가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첫번째가 메디케어 SUPPLEMENT 보험입니다. 미국 전지역에서 그 보험보장이 PPO 플랜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MEDICARE PART C PPO 플랜 처럼 캘리포니아에서만 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달 본인이 지역에 따라서 메디케어 부족분 20%를 보충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내어야 하며 반드시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캘리포니아에서만 거주하신다고 한다면 MEDICARE PART C PPO 플랜에 가입하는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메디칼만 가지고 있는 분**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예산안이 통과함에 따라 11월부터는 1년에 병원 방문이 7회로 제한되면 응급실에 방문시 \$50 병원 입원시 하루에 \$100 그리고 처방약의 처방도 제한이 됩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자유스러워 지려면 각 카운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HMO PLAN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즉 MED-CAL MANAGED PLAN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분**

캘리포니아 예산안이 연방정부의 승인 후 11월 1일부터는 메디칼의 혜택이 현저히 축소가 되며 그 이후는 메디케어만 가지고 건강보험 혜택이 보장이 됩니다. 즉 메디케어의 본인 부담금 의료비 2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1월까지의 본인의 플랜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새로운 캘리포니아 메디칼 예산안이 시행이 되는 11월 1일부터는 메디케어 PART C 플랜이나 아니면 각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MED-CAL MANAGED CARE 플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저희 한솔은 메디케어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격을 갖춘 메디케어 스페셜리스트가 도와드립니다.

**마케팅 디렉터**



데이빗 강 213.500.4563  
Lic:0F16211

**플러튼 지역**



홍미영 714.715.6345  
Lic:0672051

**사우스 베이 지역**



김명신 310.720.0134  
Lic:0D01402

**밸리 지역**



쏘나 민 213.700.1098  
Lic:0C00099

**다이아몬드바 지역**



김선화 909.731.3091  
Lic:0D73357